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는 물론 천국까지 동행하는 승리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임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26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78호 2012년 3월 31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발행인 칼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만물이 소생하는 신비의 새봄을 맞으며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살을 에는 듯한 겨울의 찬바람에 온 대지가 얼어 펴던 겨울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 새봄의 따스한 햇빛과 온화한 바람이 불자 굳게 얼어붙어 잠자던 대지엔 온갖 꽃들이 앞 다투어 화사한 웃음을 안겨주며 향기를 진동시킨다.

맛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의 숨씨에 감탄하지 않을 자가 누구랴!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이시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생명의 아버지이시다. 겨울이 오면 대지가 꽁꽁 얼어붙지만 그 겨울이 가면 잠자던 대지엔 기지개를 펴고 봄바람과 함께 새 생명의 약동하는 모습을 본다.

인생에게 최대의 적은 죽음이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기 때문이다. 키엘케골은 인간의 생애를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존재"라고 정의하였다. 하이데거는 인생을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래서 다섯 가지 명제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 죽음은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다. 죽음은 가장 정확하다. 죽음은 결코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의 자연스러운 정의라고 하겠다.

그러나 2000여 년 전 이 땅위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영원한 적인 그 죽음을 생명의 은총으로 바꿔 놓으시고 인류의 구주가 되신 것이다. 생명의 구주로 오신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크리스천의 구주가 되신다.

생명의 말씀이신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죽음이 없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증거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는 유한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요,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 생명으로 인류의 영원한 적인 죽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

리의 죄 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삼 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영원한 적인 사망권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요한복음 11장 24, 25절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의 하나님은 죽음 앞에 떠는 인류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

새봄과 함께 부활의 계절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이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속에 약동하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부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자!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자!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의 복음을 온 누리에 힘껏 증거 하자!

초대시

부활의 날



권태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담임, 시인)

사랑하고 기뻐하는 독자
 고난의 길 가게 한 아버지 마음
 누가 이해하리오

대속의 은혜 입히고
 구원의 사명 안긴 아버지 사랑
 누가 깨달으리오

멸시 천대, 고통 견디고
 십자가 강가에 피어난
 보혈의 사랑, 부활의 영광

사망이 생명에 삼켜
 무덤 문 열리고
 사랑의 능력으로
 영생의 열매 주시니
 가슴 벅칩니다

아! 승리의 부활절

회복과 행복이
 온누리 택한 백성 위에
 풍성히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 거룩한 변화 사건에 동참!

2012 부활절 맞아 역사적 부활 의미 재점검

부활절은 일년 중 가장 위대한 시기이다. 부활절은 너무나 큰 절기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크리스천들조차 그 절기의 광대함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절의 의미를 축소해 자신들의 작은 마음에 끼어 맞추려 들었다. 세상은 부활절을 탈복숭이 토끼나 초콜릿으로 만든 달걀과 맞바꾸었다. 물론 토끼나 초콜릿도 어렵잖게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부활절이 의미하는 바의 출발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오늘날의 영

적인 삶의 원천이 모두 부활절에 기초한다고 생각해왔다. 예수는 오늘도 살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은 사실이다. 이는 매우 훌륭한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부활절의 진실을 온전히 설명해내지는 못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의 근원이 부활절에 근거한다고 생각해왔다. 예수의 부활은 무덤 너머에도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4면으로 계속)



2면

부활절설교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



3면

전쟁영웅 통해 인간 죄성 폭로



7면

"미디어극성, 고난묵상... 진정한 고난의미 나누어"



12면

금기 기고
 장현일 장로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19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주강사 오정현 목사 (서울 사랑의교회 담임)
 옥한흠 목사 (영성 강의로 진행)

강사 김명호 목사, 김건우 목사, 강명옥 전도사
 일시 2012년 5월 21일(월) - 26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상 현 이민 교회 담임목사 (단 55세 이하에 한함)
 (담임목사 참가 및 수료 시 부교역자도 참석 가능)

정원 160명
 등록서류 신청서, 후보, 사진 1매
 등록비 390USD (숙식 및 교재 포함)

등록마감 2012년 4월 20일
 (인원 제한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제 12기 제자훈련 체험학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제자훈련의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제자훈련을 위한 이론과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돕는 Workshop입니다.

강사 김명호 목사, 김건우 목사, 김홍장 전도사
 일시 2012년 5월 28일(월) - 5월 31일(목)
 대상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수료자
 등록비 250USD
 등록 마감 2012년 4월 20일

제자훈련 세미나를 수료시에는 버밍햄 신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절 설교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관계

(누가복음 24:1-12)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기독교 신학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자유주의 신학과 2)보수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18, 19세기에 독일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주로 두가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1)성경의 고등비평 2)사회 복음주의를 부르짖습니다.

성경의 고등비평은 한마디로 성경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초자연적인 것들은 성경에서 다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이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비신화화(Demythologization/Anti-Myth)를 부르짖었습니다. 즉 신구약 성경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신화적인 것들은 다 배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5병2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긴 이적이거나 예수님이 바다위로 걸어가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으니 성경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초자연성을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의 교회를 휩쓸고 북아메리카에도 휘몰아쳐오자 보수신학자들은 미국 나이아가라에 모여 자유주의신학으로부터 기독교를 보전키 위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사상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교리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1)성경의 무오성(Infallibility of the Bible) 2)그리스도의 처녀 탄생(Birth of Virgin of Christ) 3)대속적인 죽음(His Redemptive death) 4)부활(Resurrection) 5)그리스도의 재림(Second coming of Christ). 보수주의 교회들은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근본주의자(Fundamentalist)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기독교의 근본교리를 믿습니다.

4세기의 성자인 성 어거스틴은 개종한 후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그의 능력에 대하여 연구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사역이며 그리스도의 동정녀탄생이며 십자가에 죽으심이며 예수님의 부활사건 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과학적 지식으로 판단하고 또 판단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 꿈을 꾸었습니다. 망망대해의 바닷가로 나가니 어떤 아이가 조그마한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서 한쪽으로 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어거스틴은 너 지금 무엇하는 거냐? 하고 물으니 "바닷물이 몇 바가지가 되는지 재

어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거스틴은 크게 웃으면서 "야 이놈아 이 깊고 넓은 바닷물을 그 작은 바가지로 어떻게 되어 본다는 말이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어거스틴을 조소하면서 "당신의 그 작은 두뇌와 지식으로 넓고 깊은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재고 있느냐?"하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어거스틴은 이후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의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훌륭한 성자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은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로 신앙 사건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남자들은 다 잠들었고 여자들만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것을 보면 확실히 여자들이 남자보다 열심히 더 좋습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문은 열려있고 앞 돌은 굴러 옮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빨리 달려가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사실을 흥분하여 알렸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눅24:11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비어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허탄한 듯이 비어 믿지 아니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꿈같은 소리를 해서 도저히 믿기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체험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에게 신앙사건화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종말에 나타난 메시아의 구원사건"(Salvation Event)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한 부

활사건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사건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미의 나라들은 축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축구 때문에 두 나라가 전쟁까지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한국 사람에게 알리니 한국 사람들은 "에이 설마 축구 때문에 무슨 전쟁을 해"하면서 믿지 아니하면 이 전쟁이 난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내게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이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Faith)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중재(Mediator)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이 나의 부활이 되어 나의 신앙사건화가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지 못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게 하기위해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 교외에 고든 콘웰(Gorden Conwell)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1884년 러셀 콘웰(Russel Conwell)이라는 사람에 의해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그는 원래 철저한 회의론자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북군의 지휘관이었습니다. 한 번은 전쟁에서 급하게 후퇴하다가 지휘관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지휘봉을 놓고 오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자기 밑에 있는 링이라는 소년을 시켜서 그 칼을 찾아오도록 부탁했습니다. 이 소년은 목숨을 걸고 적진 속에 들어가 칼을 찾아왔지만 돌아오는 길에 총에 맞아 피흘리며 콘웰의 천막에 들어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콘웰은 자기를 위해 피 흘리는 소년을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링,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더냐?" "저 때문에 걱정이 마십시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나 나의 친구이기에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때까지 철저한 회의론자요 무신론자였던 콘웰은 그 소년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주여, 이 어린 아이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믿고 찾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제가 몸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결단했고 그때 성령님은 그에게 역사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만든 것이 바로 콘웰 신학교였습니다. 나중에 고든이란 목사님과 힘을 합쳐서 고든 콘웰 신학대학원을 보스턴에 세웠습니다. 그 학교를 통해 수많은 지도자를 키워내게 되었고 부활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

게 되었습니다. 2. 성경대로 믿는 성경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고전15:3-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한 것은 어찌다가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성경대로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우리가 성경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그들의 신앙 슬로건 "Sola Scriptura, 오직 말씀으로"의 신앙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처럼 말씀이 가리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데 서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성경중심의 신앙을 가질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하나님 중심, 성경말씀 중심"의 바탕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돈에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즉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짧은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서 일등 가는 나라로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은 점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어려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를 잘못 해서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낙태, 동성연애, 동성결혼의 문제는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활주일에도 성경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대로만 믿는 "성경중심의 신앙인" 성경중심의 교회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부활 신앙은 죽음도 두려워 않고 고난도 극복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부

활한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요 부활로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한교수님이 죽은 사람의 얼굴표정을 조사해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비록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의사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고 그 표정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얼굴의 표정이 너무나도 심한 공포에 질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궁금하여 그들의 학력, 재산 부부간의 행복 등 조사 대상이 될 만한 것은 다 동원해서 조사해보았으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답이 나왔는데 그것은 신앙적인 차이 즉 죽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얼굴은 평화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죽어도 장차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은 보기가 흉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일의 부활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킵니다. 현재는 병 들고 낙약해도 장래에는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하고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을 믿습니다. 현재는 늙고 추해도 장래에는 아름답게 젊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 집 앞에는 봄을 맞이하여 개나리와 철쭉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황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얼굴도 주님의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여 활짝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 수시 입학이 가능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전쟁영웅 통해 인간 죄성 폭로

미 언론, 아프간 민간인 16명 살상, 로버트 베일스 사건 보도

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을 가져본 그리스도들에게는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세속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비난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원죄와 죄성을 부정하는 자유신학의 이론이 한마디로 코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죄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은혜의 강도는 높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이론은 결코 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술이나 이성의 능력은 인간의 본성을 미화하게 된다. 즉 낙관적으로 인간은 선하며, 이성이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통제 가능한 것이 바로 인간성이라고 단언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전쟁이라는 가장 사악한 악탈과 폭력을 만들어낼 정도로, 철저하게 죄성에 사로잡혀 있다.

2014년 아프간에서 철군을 앞두고 있는 미군은 또 다른 인간의 광기 즉 야수성을 보여줬다. 아라크 파병 세번, 그리고 아프간으로 배치된 미군 전쟁 영웅, 로버트 베일스는 주민 16명을 살해하고 11구의 시신을 불태웠다. 그리고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살인이 정당화 되는 것이 전쟁이라지만, 인간에게 인간을 죽일 권리는 없다. 그것도 민간인들을...

"한 인간의 존귀함은 전 지구보다도 무겁다"고 인간이 만든 법 정신은 천명한다. 따라서 미 언론은 진지하게 로버트 베일스 사건을 통해,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 내는 광기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인간일 수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지난 11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무고한 민간인 16명을 학살한 난사범은 타고마 루이스-맥코드 보병 2사단 3연대 소속의 저격수인 로버트 베일스(Robert Bales 38) 하사인 것으로 군 당국이 확인했다. 2001년 9·11테러 발생 후 입대

를 구입했다. 그는 루이스-맥코드 기지에 근무하면서 3차례에 걸쳐 총 3년 이상을 이라크 전에 투입됐고, 2010년 이라크에서 폭탄테러로 차량이 전복돼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이라크 무장 세력 250명 전원을 사살하는 전투



를 성폭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2005년에는 음주운전혐의(DUI), 2008년에는 뺑소니 등의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과 동료들은 '베일스는 매우 가족적인 좋은 사람이었으나 전쟁터의 동료 이야기를 할

람이 지독한 악행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할 말을 잃고 혼돈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갖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준다. 텍사스 대학의 데이비드 버스 교수가 대학생들에게 누군가를 살해

인간 죄성, 전쟁/내란 속 아닌 법과 문명 통제세계에서도 나타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갈 때만 새로운 인간 가능

해 11년 복무 경력을 가진 베일스 하사는 그 동안 모두 3차례 이라크, 한차례 아프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전쟁터로 파병돼 세운 공훈으로 모두 9개의 훈장을 받았던 '전쟁 영웅'이었다. 하지만 잦은 참전으로 인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앓았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알코올과 가정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당국이 발표한 베일스 하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나 노우드 고고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했으며 9·11테러가 발생한 2개월 뒤 군에 지원해 교육을 마친 뒤 플로리다에 배치됐다가 이듬해인 2002년 루이스-맥코드 기지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2005년 캐롤린 베일스와 결혼했고, 같은 해 11월 아편 아래쪽의 레이크 탱스에 28만 달러짜리 집

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PTSD 등을 앓은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러한 공로로 육군공모훈장 6차례, 선행훈장 3차례를 받았으나 지난해 3월 중사 진급에 실패하면서 좌절했고, 제대하는 것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또다시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결정되자 몹시 상심했으며, 난사극을 벌이기 이를 전인 지난 9일 레이크 탱스에 있는 집을 쏘 세 일로 팔려고 부인이 부동산 에이전트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고위관계자는 "베일스 하사가 음주벽, 잦은 파병, 가정불화, PTSD 등 복합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캔자스 주 포트 레벤워스 군교도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결혼 전인 2002년 여자 친구

때는 다소 흥분하는 경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전쟁 영웅, 매우 가족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베일스 하사가 16명이나 되는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지구촌을 강타하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는 '좋은 사람이 악행을 할 때'(When the Good Do Bad)라는 제목으로 인간의 죄성을 고발한다.

브룩스는 하사관인 로버트 베일스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사건을 알고 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대한 베일스가 그런 악행을 했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을 전한 뒤, 인간의 양면성을 지적했다.

히틀러나 이디 아민과 같은 몇몇 인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간은 선천적으로 좋은 품성이라는 세계관에 따라 살다가, 어느 날 좋은 사

하려는 생각을 했는지, 그렇다면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예세이로 적어보라고 하자 남학생의 91%와 여학생의 84%가 구체적으로 살해를 생각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어떤 여대생은 과거 남자 친구를 저녁초대를 해서 가슴을 갈로 찔러 살해하는 생각을 했고, 어떤 남학생은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 살해하는 생각을 했으며, 또 다른 남학생은 친구의 손가락을 자르고 폐에 구멍을 낸 뒤 살해하는 생각을 했다는 예세이도 나왔다.

브룩스는 인간은 번성하고 생존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살해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타고난 살해지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살해예상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살해예상을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한다.

(4면으로 계속)



시론

고난 주관을 맞이하여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라는 것은 복음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으며, 부활과 궁극적인 영광이 십자가의 길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에 앞선 고난주간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해야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해마다 돌아오는 습관적 절기, 연례행사로 지날 수 없습니다. Spring Break, 방학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영화(榮華)의 모습을 기대하기를 원한다면,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온전하게 묵상하고 이해해야 하며, 외면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실한 섬김의 모습이 되살아나야만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외식적인 금식이나 슬픈 표정,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같은 감상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아가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기성찰을 통한 참된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직도 멀기만 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하기 위한 자기부정과 몸부림, 아리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한 수고와 땀 흘림, 교회를 참 교회로 세우기 위한 봉사과 헌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전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쁘게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고난주간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매일 매일과 더 나아가 일생을 통하여 참고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구체적인 실천을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금식을 권해드립니다. 금식이란 음식을 금하는 것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음식보다 내면을 자극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면의 만족을 위해 즐기던 것들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영화, 운동, 스포츠 채널, 초콜릿, 소프트드링크 등등입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것도 고난 주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에서 계획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가족과 함께 나와 하루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시작하는 황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피곤해도 영혼은 땀 뚝이 기쁜 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수난과 십자가 후에 있는 부활의 놀라운 결과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놀라운 새 생명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삶에서 작은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가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을 맞이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 삶의 터전과 온 세상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를 향한 뜨거운 헌신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값진 희생을 마음에 새기면서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2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2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2.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2)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7(Fri) - 21(Mon), 2012.
- 2) Place: Sheraton Meadowlands Hotel & Conference Center, East Rutherford, NJ. 07073 (Tel: 201-896-0500)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Genesis 3:1-21
 - (2) NT Exegesis Text - 2 Peter 3:8-13
 - (3) Thesis Topic - A Critical Review of VeriChip from the Reformed Perspective
 - (4) Sermon Text - ① OT : Joel 2:28-32 ② NT : Acts 2:1-12
- * Choose one of the two texts above.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3.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hankschoi@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HanksChoi_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2.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00 (U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2..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2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6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2-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7-21) through Rev. Choi (267)471-7777, hankschoi@g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Hanks Choi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Email : hankschoi@gmail.com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 Cell : 267-471-7777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Jung Hyun Lee (310)749-0577 (llakwpc0316@yahoo.co.kr)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Hanks Choi (267)471-7777 (hankschoi@gmail.com)
- 3) Inquires in English : Rev. James Kim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내가 목마르다

어느 날 탄타루스 왕이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제우스신의 음식을 훔쳐 먹었다. 그 죄로 그는 평생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고통의 벌을 받게 되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앞에 있는 물 컵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물 컵이 뒤로 쏙 물러나는 것이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앞에 있는 나무에 열린 과일을 따 먹으려고 손을 내밀면 그 나무 과일이 하늘로 휙 올라가버리는 것이다.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눈에 보이지만 하나도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고통을 영원토록 겪어야 했다. 이 탄타루스 왕의 신화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생겼다. '텐터라이징'(Tantalizing)이라는 단어이다. '감질나는, 자극하는, 애간장을 태우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라. 눈에 뵈는 것인데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한다.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는데 얼마나 안타깝지 않을까? 얼마나 감질이 나겠는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목마름은 다 이런 것이다. 내가 손에 넣을 만 하면 손에서 빠져나간다. 설사 얻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고 얻을수록 갈증은 더 생기고, 배는 더 고프게 된다.

불타는 목마름의 절규가 십자가 위에서 들려온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말로는 두 마디로 돼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단 하나의 단어이다. 디프소(Dipsos) 예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갔다. 그분은 마침내 고통의 극한 상황을 토해낸다. "내가 목마르다" 온 세상의 갈을 만들고 바다의 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니 이해가 되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친히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신가?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겠다던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니 좀처럼 이해가 안 된다. 그 대답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샘을 터뜨려 타는 목마름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친히 목말라 하신 이유는 바

로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였다.

우리 한국에는 정점이 숫자가 기독교 성직자 수의 10배가 넘는다고 한다. 무당을 만나고 나오는 사람에게 "왜 이런데 오느냐"고 물었더니 "답답해서왔다"고 하더라.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명예와 인기를 누리기도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라스베가스에는 밥만 먹으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찍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사랑은 먹은 아이가 위장은 텅 비어 있는데도 당분으로 헛배가 불러서 밥상 앞에서도 밥을 외면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의 죄악 된 쾌락들에 헛배가 불러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식욕이 없다. 빌리그레함의 말처럼 우리는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병사들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목이 너무 말랐다. 그러다가 저 멀리 신기루가 보였다. 저 사막 끝에 강물이 넘실거리

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쓴살 같이 달려가 점점 점점 물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한껏 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 얼마 후 정찰대가 그들을 찾았는데 그 병사들은 모두 목에 모래가 가득 차서 죽었다. 그들은 모래를 물인 줄 알고 퍼마셨던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 모래가 목에 가득 차서 죽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아닌 것을 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마시다가 죽어가고 있는가? 인생의 갈증이란 끝이 없다. 다윗이 반란군에 의해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부른 시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명예를 회복하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왕궁 침실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교회사립과 복음전도에 목이 말라 있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목이 말라 있었다. 믿음의 선전도는 진리에, 기도에, 말씀 묵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목이 말라 있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그곳에 부어주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기도에 목이 마른가? 열심히 기도하라.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용서에 목이 마른가? 용서하라. 하나님이 지금 사랑과 평화의 은사를 주실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다. 신앙인의 한 가지 목마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성령을 목말라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님의 초청과 권유도 목마른 자는 오라는 것이다. 교회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이 땅의 목마른 인생들이 물려와 생명의 샘물을 받는 곳이다. 설교는 목마름을 시원한 생수로 채워주는 하늘의 약속이며 찬양은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마름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일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의 갈증 목마름도 다 해결 받고 이 한 주간도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란다.

전쟁영웅 통해 인간 죄성 폭로

(3면에서 계속)
또한 브록스는 대량 살인자를 보면 대개 오랜 기간 두려움으로 고통받다가 그 두려움이 분노로 폭발해 일을 저지르고, 연쇄살인범은 종종 매력적인 인물로서 자신의 고귀한 의견을 다른 사람이 공유하지 않고 그 고귀한 의견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방해 받는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일으킨다고 분석한다. 최근 일어난 미군 병사들의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터져 나온 베일스 하사의 살상은 여전히 인간 속에 광기 즉 야수성이 잠재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바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뼈저리게 상기시켜 준다. 인간 속에는 누

구든지 야수와 같은 죄성이 숨겨져 있다. 이 야수는 시간과 기회만 있으면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마치 불면이면 땀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죄성, 인간의 광기가 흘러나온다. 이러한 집단 광기는 전쟁과 내란과 폭동의 상황 속에서 광적으로 터져 나온다. 인간의 법과 관습과 도덕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야수를 일시적으로 고삐처럼 묶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삐가 풀리고 나면 인간

은 금방 폭도로 변하고 만다. 인간은 순식간에 야수로 돌변하고 만다. 인간이 총을 잡으면, 정복자가 되면 자신이 곧 법이요, 약마가 된다. 완전히 무법천지가 된다. 이는 인간이 아무런 통제와 제재 없이 인간의 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야수성이 꼭 전쟁이나 내란 같은 상황 속에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법과 문명이 통제하고 있는 세상에서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야수성에 노출된 사람들의 범죄를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개인적인 이웃 관계 속에서도 드러난다. 아니면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친구 사이, 이웃 사이에도 이권이 개입될 때마다 이러한 야수성은 약간의 변장을 하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한다. 결론으로, 로버트 베일스 하사의 살상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보고이다. 그것은 짐승이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 모든 사

람, 그리고 모든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정신을 말한다.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에서 16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 질문에 대한 미 언론의 대답은 이렇다. 베일스 하사 살상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교훈이며, 따라서 우리 자신과 우리 운명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갈 때만이 이 옛 야당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야당이 된다고...

그 거룩한 변화 사건에 동참! 한인교회 지역별 연합예배로 부활의 주님 찬양

(1면에서 계속)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인간 삶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죽음은 인간에게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마련이라고 말하면서, 죽음의 실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뇌하지 않는 모습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낯선 자세이다. 기독교 신앙은 또한 죽음이 던져주는 그림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이 오직 생물학적인 단계의 마지막에만 오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삶의 한 가운데서 인간은 죽음의 다양한 세력과 그림자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심지어는 종교적 영역에서도 죽음은 아직도 자신의 그림자를 완전히 거두지 않았다. 죽음의 현실에 대항해 기독교 신

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선포한다. 기독교 신앙은 그 근본에 있어서 부활 신앙이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또한 말하고 있다. 사도신경은 누구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분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분이 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은 부활 사건이 예수의 구속(敍贖)의 십자가의 맥락 안에서, 곧 구원론적인 시각에서 살펴져야 할 것

임을 뜻한다. 예수는 죄와 죽음과 율법의 세계에 대항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준 것을 의미한다. "인자의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5). 부활의 일차적 중요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결하고 있는 아들의 세력과 관련하여 살펴질 때 그 뜻이 분명히 밝혀지는데, 그 세력은 곧 죄와 죽음과 율법의 세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있는 사람들과 피조물을 향한 구원론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정당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뜻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하나

님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대가 이미 이 세계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수의 부활이란 이전의 삶의 소생이거나 이전 세계의 단순한 연장자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실존적 차원으로만 축소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실존의 포괄적 틀이 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선포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골1:13)로 옮기셨음을 말한다.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음"(고후5:17)을 선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새것을 단지 실존의 영역에만 국한해서는 안된다. 죽음의 세력의 영역이 포괄적이듯이, 부활의 생명이 다스리는 영역도 포괄적이기에 개인의 차원이나 영혼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전파와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의 삶으로부터 도피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우리가 도피하는 실재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계의 실재가 아니라 죽음의 실재일 뿐이다. 또한 우리는 죽음의 실재에 대해서 도피하는 소극적 자세만을 취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부활 사건에 기초한 부활 신앙 가운데 죽음의 실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저항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선회적으로 참여한다. 우리는 죽음과 죽음의 세력이 마지막이라고 외치는 모든 죽음의 운명론에 대항해 부활 사건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예기적으로 참여한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열린 무덤의 틈새를 통해 부활과 생명의 끝없는 흐름이 세계 속으로 들어온다. 바로 그것이 부활절이며, 바로 그것이 부활 신앙이다. 디아스포라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국은 물론 미주에서도 지역별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국교회는 4월 8일 오전 5시 '부활, 거룩한 변화'를 주제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한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24:32)

를 주체 성구로 진행되는 이번 예배에서 기독교 주요교단은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하고 삶의 변화와 부활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전한다. 예배문학작소위원회 전 철 목사는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서 성장했던 한국교회는 어느새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린 서머나교회처럼 변해가고 있다"면서 "부활이 단지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이후 세상을 바꾼 변화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의 참 변화와 갱신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주내 한인교회들도 각 지역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예배를 드린다. 캘리포니아는 10개 지역교회 주최로, 오레곤은 4개 지역에서, 뉴욕은 28개 지역, 뉴저지와 필라, 코네티컷 등도 크고 작게 연합예배를 드림으로 일제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편집부)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교육칼럼

Teaching Method 개발 문화에 의한 접근 방법 5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에서 결여되어 있는 신앙교육과 인간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교육현장은 바로 주일학교교육이라고 역설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교육의 실패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의 주일학교교육의 현장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학습자인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는 결과적으로 볼 때,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마치 벗어버리고 싶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관을 짓기도 하고 최고의 시설이라고 자랑하는 비전센터, 드림센터 등을 세워 자녀들을 위해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다음 세대에 나뉘지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음향, 미디어, 조명 등 현대적인 시설만이 교육환경의 전부는 아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너무 인위적으로 개발하고 과학적으로 편리성을 추구하지만 반면에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자연은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모든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렇듯이 교육환경에 있어서도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친화적인 시설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요인이 더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나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이 슬피고 살아가는 공기와도 같은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 교육관을 확립하고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칼럼에서는 주일학교교육의 목표와 이론 그리고 교육철학과 교육심리 그리고 자녀들의 신체 심리와 인지발달 심리 등을 함께 생각하며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측면에서 공감대를 갖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육목표는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 주일학교교육의 목표는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교육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말로만 글로 써 읽게 하고 보게 하고 외우게 한다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으로 균형적인 발달을 함께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롤 모델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까지 즉 성인이 되기까지 아이들은 10번 바꾸고 100번 바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바대로 10번 100번 바뀌어가며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조금만 관심에서 멀어져도 아이들은 좋아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

하려면 운동이나 함께하는 문화 활동 등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의 정서로 자리 잡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육은 기회입니다. 그런 체계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재능이 발굴이 되고 리더십도 길러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주일학교교육의 다양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평생 음악을 사랑하고 지휘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의 토포니카를 통해 받은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부탁드리 는 것은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사용하는 교육시설을 주중에도 오픈하여 방과후학교 또는 예체능학교를 운영하고 긴긴 여름방학 때면 서머스쿨을 세워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전문사역자들을 교회에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교회교육의 대계를 세위감에 교역자들과 함께 놀라운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장 혜택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무섭게 변화하는 타락한 문화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인간성 교육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닮아가는 신앙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인적 균형적 발달 위한 롤 모델(교사) 필요 방과후학교 서머스쿨 등 다양한 교회학교 시도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그대로 모방하면서 배울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교사의 인격성과 역할과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다 성장한 그들에게도 삶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본을 보이시고 실질적인 교육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교육의 허술한 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론적이고 공상적인 신앙 말입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우리 자녀들에게는 행동하는 신앙 즉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선생님을 세워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주일학교교육에 있어 교육이론이란 교육학적인 면에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교육은 과정입니다. 단 방향과 같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아이들이 영구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인격을 형성하기

가도록 하는 것이기에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빨리 단정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가능한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여금 가능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나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다양한 Activities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Youth Orchestra, Choir, Musical, Dancing, Arts, Tennis, Basketball, Baseball, Volleyball 등 무엇이든 함께 참여하여 할 수 있는 예체능 활동들을 권장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가면서 싸워야 할 대상은 자신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놀이문화가 몸을 사용하지 않고 가상의 공간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비인격적인 상대와 대화하고 게임하고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하는 사이버 세상에 상당히 많은 삶의 부분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할 수 만 있다면 친구들과 만나 더불어 살아가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들에게 정규학교를 세우고 선교지에도 학교를 세워 다음 세대를 키워내자고 주장하는 루이스 부시목사의 주장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일학교를 살리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일주일에 단 한 번, 단 한 시간 만나는 만남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관을 변화시키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기회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교사들의 철저한 훈련과 기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일학교교육에 교회의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더불어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교회 시설의 활용성을 증대해 가는 것이 곧 교회부흥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부연하고 싶습니다. 다음 호에서 교육철학과 교육심리 그리고 신체 심리와 인지발달심리에 관하여 계속하겠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나성근교의 벨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교회는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지만 정착률이 낮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문자들이 교회를 잘 정착할 수 있는지, 또 예배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A: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교회성장학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면 예배가 좋아야 하고 방문자가 정착하고 좋은 일군이 되도록 만들려면 양육 프로그램이 좋아야 합니다. 릭워렌 목사의 말에 의하면 새 교인들은 대개 첫 방문시 예배시간 10-15분정도가 지나면 다음 주일에 이 교회에 다시 올 것인지 안을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목회트렌드 2000"이란 책에서 예배와 제자훈련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바라는 창조적인 목회는 불가능하다. 결국 초신자와 새교인들이 주일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면 교회에 정착할 수 없을 것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양육 프로그램(제자훈련 포함)들은 무색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사역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감동적인 예배, 치유가 있는 예배,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예배,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는 예배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성공하여 부흥된 목회자들의 교회가 결코 제자 훈련만으로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대부분 경건과 감격의 예배가 정착률 높여

이 그들의 예배에 엄청난 역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참석해보면 찬양이 뜨겁고 예배가 살아 있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제자훈련만으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야 교회가 성장한다"(두란노)라는 책을 쓴 송용조 목사는 사람들의 교회 선택기준이 예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면서 "사람들이 왜 교회 선택기준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예배를 그토록 중요시 하는가? 예배에서 얻는 유익이 많기 때문이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삶의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배에서 얻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배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석년 목사는 "패스 브레이킹"이란 책을 썼는데 그는 교회성장형 예배를 개발해야한다면서 "예배는 교회의 얼굴이다.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교회의 첫 인상은 예배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적(행복감)이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성공=신앙성공=인생성공"이라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경건성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두렵고 떨리는 경건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감격이 예배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경건성과 기쁨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경건한 예배만을 강조하여 침울하고 어둡고 무겁게 진행하면 성도들의 인식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반대로 즐거운 예배에만 초점을 두다보면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는 자식이 양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불렉홀 속에 빠져 표류하는 이 시대 여기 영적 전쟁의 근원을 파헤치고 하나님 도성의 거룩한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 한 편의 스펙터클한 영화와 같은 책이 있다

거룩한 전쟁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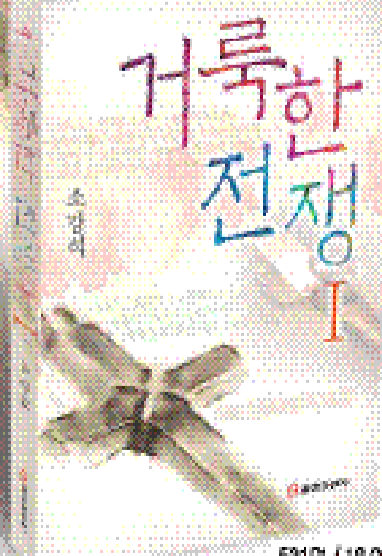
소강석



연말의 소망자 소강석 목사

1986년 1월 문화사목로 동남에 한국연인교회 개척으로 활동 중이며 새생명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수필인, 시, 에세이, 부흥의 인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라게 하기 위한 주저함, 주력하고 있다. 2008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명출판문화상 최우수상, 2011년 1월 10일 이데올로기연구소가 수여하는 2011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명출판문화상 최우수상, 2011년 1월 1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명출판문화상 최우수상 수상했다. 일시적으로 목회생애가 중단된 후 다시 목회로 돌아와 전하는 감동은 전세대로 있다.

영적 전쟁 관련 소강석목사의 또다른 저서



경건한 신학적 열매를 바탕으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통전적 주해와 고대 근동 문명을 캔버스로 하여 펼쳐지는 입체적 내러티브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 마다 거룩한 흥분과 감동을 준다.

오늘날의 모든 설교자와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2012년 한 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침서!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탄의 아쌈(ASSAMESE)



부탄의 아쌈인들은 인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아쌈 땅에 처음으로 거주하는 사람들로 16만 이상의 아쌈인들은 또한 부탄과 이웃하여

있다. 그들의 본토 언어는 아쌈어로 불리며 티벳 버마의 지방 사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도-아리아계 언어이다. 아쌈인들은 처음에는 인도 근처에서 부탄의 남동 지역으로 건너왔으나 그들의 정착 시도는 본토 부탄인들과의 대립으로 공격받게 됐다. 17세기경에 영국은 아쌈과 부탄의 경계를 정했고 이로써 그 분쟁은 해결됐다.

오늘날 아쌈인들은 "용의 땅"으로 불리는 지역에 부탄의 소수민족 형태로 남아있으며 부탄의 아열대 기후지역인 남쪽지방에서 거주하

고 있다. 그곳은 매해 평균 80인치 의 비가 내리는 습윤한 지역이다. 그 땅과 기후는 그들이 기원지로 삼기에 매우 적당한 지역이며 그곳은 아름다운 강과 계곡, 5000피트에 달하는 산들로 가득차 있다.

삶의 모습

아쌈인들에 의해 정착지가 된 이후로 그 땅은 거의 경작지로 사용되고 그들 대부분은 농사꾼이다. 쌀, 옥수수, 감자, 밀과 감귤류가 다량으로 재배되고 의료용 허브 또한 산중턱에서 풍성하게 재배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돼지, 소, 닭 등의 가축들은 농장에서 길러진다.

인도와 부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그 지역을 관통하며 건설됐는데 이 시설물은 두 나라 사이의 거래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 농업 이외에 일부 아쌈 노동자들은 식품, 시멘트, 목재 등을 생산하는 인근

공장에서 일한다.

작은 마을들이 그 지역 도처에 흩어져 있다. 집들은 대부분 인도에 살고 있는 아쌈족들의 오두막과 같이 대나무, 진흙 짚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들은 수확물을 지켜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집 주변의 작은 들판에서 쌀을 재배한다. 대부분의 마을들은 자급자족하며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 영향과 변화에 필요를 덜 느낀다. 아쌈은 이 지역의 부탄인들과는 반대로 도시와 마을이 없으며 시골의 전원스타일을 계속하고 있다. 코בל소, 코끼리, 호랑이, 원숭이 등 다른 많은 야생 동물들이 이 지역을 배회하고 돌아다니며, 이 초원지역은 풀이 우거지고 키가 큰 풀이 많아 코끼리조차 지나기 어려울 정도이다.

신앙

비록 부탄은 불교가 우세하지만 아쌈의 80%는 힌두교이다. "창조의 신" "멸망의 신" 등을 포함해 수십만의 신에게 예배하는 힌두교는 동물도 사람처럼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다. 쪼트를 바치기도 하지만 뱀이나 원숭이 같은 동물은 또한 숭배의 대상이 된다.

힌두는 별점, 점성술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고르며 사람의 죽는 시점도 계산한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은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몸이 죽을 때 영혼은 다시 태어나거나 다시 동물이나 인간으로 육신화 된다고 믿는다. 종교의식은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다음 삶을 지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행해진다. 수도자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서 식사 전에 목욕하고 기도문을 읊고 어떤 음식

은 독특한 접시 위에 놓고 먹으며 특별한 의복을 먹고 자는 동안 졸고 있고 있다.

힌두교는 카스트로 알려진 사회 계층으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으로 낮은 카스트에 속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반대로 상류 카스트의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고 부유하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부탄의 아쌈들 사이에는 두 개의 사역단체가 있다. 영화 "예수"와 성경은 아쌈어로 번역되었지만 이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사는 아쌈인들 중 500명 이하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부탄의 약 90% 성인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한다. 교육은 아쌈인들과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누는 크리스천들에게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고대 이집트부터 사용 몰약 효능 입증

한국의 한 교회 집사가 몰약의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예수께 드린 예물이 유황과 몰약과 황금인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 몰약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많습니니다. 몰약(myrrh)은 고대 이집트와 로마시대부터 사용해 오던 값비싼 약재이자 향료입니다. 주로 감람나무에 상처를 내고 그곳에서 분비된 나무진을 발효시키면 황금빛 몰약이 됩니다."



김진우(50·부천 신광교회)집사는 이 몰약 연구에만 8년을 바쳤다. 성경을 읽다 갑자기 '몰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전문서적을 뒤져가며 파고들었던 것.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 건강식품 관련 사업을 해 온 터라 이 부분에 더 각별했다.

"몰약을 연구할수록 그 효능이 참 놀라웠어요. 강력한 항균작용과 소염작용을 하는 몰약은 미용과 살균뿐 아니라 질병치료와 예방, 미라 보존 등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몰약의 주성분은 거결스테론이란 성분인데 스테로이드처럼 면역력을 크게 증강시켜줍니다. 특히 피부에 좋구요."

김 집사는 이 몰약을 재료로 이용하면 치약, 비누, 화장품, 다양한 생필품을 만들어 전도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동방박사가 아기예수에게 드린 귀한 재료로 만든 것을 선물로 주면서 전도를 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능을 인정받아야 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난 2010년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공동연구를 의뢰했어요. 성분검사가 시작됐고 소염과 항균 효과 등 여러 부분의 효능이 입증됐고 증빙자료도 받았습니다. 연구를 거쳐 현재 시범적으로 복용제품만 제조해 보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파스와 탈취제 등 다양한 분야로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선 최초로 몰약을 이용한 기능식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김 집사는 앞으로 몰약 연구를 더 진행, '성경 속의 비밀'을 많은 성도들과 나

누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었고 모든 연구결과가 하나님께 허락했기에 가능했다고 믿기에 수익이 생기더라도 이를 선교와 전도에 사용할 것임을 다짐했다.

'개성공단 초코파이' 북 지역 유통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는 초코파이가 북한의 웬만한 지방의 장마당까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제품을 철저히 단속하는 장마당 관리요원들도 초코파이는 단속하지 않고 눈감아준다고 한다.



최근 친척 방문차 중국을 방문한 평양주민 이 모 씨는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가 지함(종이상자)때기로 올라와 남한 상표와 포장지 그대로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다"고 자유 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청진주민 민 모 씨는 "장마당에 가면 초코파이가 널려있다"며 "남조선 상품이라면 팔거나 살 수 없다며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는 장마당 보안원들도 초코파이 거래는 못본척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수확발전소 건설로 잘 알려진 자강도 회천시 주민도 "돈만 있으면 장마당에서 초코파이는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며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이 아주 좋아하는데 남조선 식품인 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북한 주민들이 증언하는 초코파이 한 개 값은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북한 돈으로 4백~5백 원 선. 중국 인민페로는 1위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남한 식품점에서는 보통 300원 선(한국 돈)이고 인민페로 환산하면 약 1.7위안 정도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남한기업이 생산한 초코파이가 중국 내 일반 소매점에서 한 개에 1.8위안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 장마당에서의 초코파이 가격이 가격이 가깝다(저렴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북한 장마당에서 팔리는 초코파이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무료

로 제공 받아 되던 것이기 때문에 원가를 계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에 나온 초코파이가 이같이 북한 전역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성공단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5만 명에 달하는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하루에 공급되는 초코파이가 최소 10만 개 이상"이라며 "그들이 30%만 내다 판다고 해도 하루에 3만 개 이상이 북 장마당에 유통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아프가니스탄, 첫 여성전용 인터넷 카페 오픈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으로 여성 전용 인터넷 카페(PC방)이 지난 8일 문을 열었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에 맞춰 문을 연 이날, 허잡을 착용한 젊은 여성들이 카페를 찾았다. 이 카페는 현지 여성인권단체인 '변화를 바라는 젊은 여성들'이라는 단체가 마련한 것이다. 장비는 영국 자선단체의 기부와 협조를 받아 중고 노트북 컴퓨터 15대와 책상, 쿠션 등이 비치되었으며, 요금은 1시간에 1달러이다. 월 운영비는 약 1천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요금과 국내의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카페 이름은 '살라 굴로'로 지어졌는데, 살라 굴로는 지난 2011년 시집 식구들의 성매매 요구를 거부하다가 잔인하게 폭행을 당한 15세 어린 신부의 이름이다. 카페 설립을 주도한 아크리마 모라디(25)는 "아프간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장소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바깥 세상과 연결될 기회를 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걱정스러운 것은 극단적인 남녀 분리를 주장하고, 남편의 아내 폭행이 당연시 되는 아프가니스탄의 풍토와 탈레반의 위협이다. 카페 관계자들은 앞으로 탈레반으로부터 적지 않은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앞으로 여성 인권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홈스쿨링에 동성애 비판금지

캐나다 알버타 주정부의 교육부 대변인 토마스 루카

스즈키는 주의 새 교육법에 의해 알버타 주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이들과 종교 교육기관은 동성연애 행위가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알버타 주정부 교육부의 홍보부 담당 도나 맥콜은 가정에서 부모가 그들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말할 수는 있지만, 가정에서의 홈스쿨 교육 과정에서 부모의 동성연애에 대한 가르침에 주 정부가 제한을 두는 것이며, 홈스쿨이나 사립학교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포함한 알버타 주의 모든 교육 기관의 성 정체성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알버타 주 정부가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반면 홈스쿨 옹호 단체인 홈스쿨 법적 변호회의 폴 파리스는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가정에서의 사적 대화를 교육부가 단속하고 불법화하려는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파리스는 개인의 삶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홈스쿨 단체도 새 교육법이 기존에 있는 학교법을 대체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 교육법은 현 학교법이 명시한 학교가 알버타 주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천명하였지만, 알버타 주의 인권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추가시켰다. 그런데 이 인권법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으로 특히 기독교인들의 동성연애에 대한 신념을 공격하는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알버타 주 교육부에 의하면, 기독교 홈스쿨링 가정은 가정에서 동성연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려줄 수 있지만 이것이 홈스쿨의 교육과정의 아닐 때에야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교육부 관리 맥콜은 한 가정의 가족의 신념을 말하는 것은 그 가족의 사정이지만 알버타 주의 사회의 기본 정신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중순 캐나다 대법원은 퀘벡 주의 가정들이 주 정부의 윤리와 종교 문화 프로그램한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퀘벡 주정부의 프로그램은 세계의 종교들과 생활 방식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며 주정부는 이것을 홈스쿨 가정을 포함한 퀘벡 주의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규정했다.

반면 홈스쿨 옹호자들은 이 대법원 판결이 다른 주에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회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선물을 보낼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 달 주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 분 이름	한글
	영 어
전화번호/Fax	() ()
배 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미디어금식 고난묵상... 진정한 고난의미 나눠야”

2012년 고난주간을 맞는 의미와 실제적인 프로그램 제시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일을 맞아 우리는 보다 경건한 한 주간을 시작한다. 고난주간은 이미 40일 동안 계속된 사순절의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주간으로, 경건하기 때문에 ‘거룩한 주간’(Holy Week)으로 부른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

셨기 때문에 ‘고난주간’(Passion Week)이며,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인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주간’(Great Week)이기도 하다. 이처럼 고난주간의 의미가 크고 놀랍다.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조금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교사들과 교역자들은 부모들과 함께 교회 학교 학생들이 고난주간에는 TV 시청하는 시간과 인터넷과 게임 등을 즐기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권

면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신 그 시간에 평소 좋아했던 성경이나 찬송가 등을 가족들과 함께 읽고 부르며 고난의 의미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때 미디어 금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참고 읽은 말씀과 찬송을 적고 느낀 점을 기록해보는 등 미디어에 노출된 학생들의 신앙생활에 절제의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

특히 다양한 미디어에 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미디어를 지배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부분에

서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미디어 금식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훈련이 어떤 고난주간에는 강조되어야 한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는 버림받은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셨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이 기간만큼이라도 골고다 언덕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들의 눈과 마음 우리의 정성을 모아 갈보리로 향해 집중해야 한다.

(편집부)

주께서 3년간의 공생애 끝에 이제 스스로 십자가 수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환호 속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식 선언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로부터 주님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 직전까지를 절기로 삼아 주의 수난의 노고와 은혜를 경건히 기리는 한 주간의 절기가 바로 고난주간이다.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이었던 이 고난주간에는 예루살렘 입성, 성전 축성, 감람산 강화, 성만찬 제정, 겹새마네 동산의 기도, 체포와 심문, 십자가 처형과 장사 등 그야말로 예수 공생애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요 전 우주적 사건이기도 했던 대사건들이 숨막히게 전개됐다. 이에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것이 응축적으로 담겨 있는 이 주간의 각 요일마다 그 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각각 기억하여 한 주간을 내내 염속한 절기로 보내게 된다.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죄 가운데 죽음에 이르렀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한 심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구원함과 동시에 사랑의 속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자 예수를 고난의 종으로 선택하셨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범이 우리 자신임을 각성해야 한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사53:5)고 성경은 지적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 아직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고 철저히 참회하는 기도의 한 주간으로 살아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화평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롬5:10) 성경은 선언한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동시에 우리 이웃과의 화목 맺음을 말한다. 고난주간을 맞아 이웃과의 화평을 좇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한 주간 동안 매일 한 끼 이상씩 금식하고 교회가 금식대금을 모아 가난한 이웃과 육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들을 찾아 사랑으로 화평을 나누어 준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흘린 피를 생각하고 헌혈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난주간으로 들어서서 그리스찬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었다면 고난주간에는 고난의 의미를 체험하고 주님의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예수께서 친히 행하신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으로 꾸며보자. 고난주간에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새 책 소개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

저자 김영하 목사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비밀’ 밝혀

김영하 목사가 최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름”을 출간했다.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본서는 ‘이름은 중요하다’, ‘사람이 지은 이름’,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 ‘예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그 이름을 사용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신다’ 등 6장으로 구성돼 이름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상세하게 수록하고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부록으로 실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과 사람이 지은 이름을 구별해 설명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며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심판주의 이름’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있다. 그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며, 그 이름으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중략) 우리가 살펴볼 이름들은 그 어떤 이름보다 항상 원인 제공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다. 이 이름들을 먼저 살펴봄을 통해 더 이상 이름 때문에 고통 받지 않고 오히려 이름 때문에 더 감사하고 이름 때문에 더 복된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생각할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다...”라고 강조한다.

김준민 목사는 본서의 추천사를 통해 크리스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귀한 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꼭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하고 있다.

김영하 목사는 총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업을 위해 도미, 수학을 연수한 후 LA 세계로교회, 알바인 베델한인교회 부목사, 시카고 노스웨스트장로교회 담임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아름다운 기적”, “하늘을 담은 사람”이 있다.

책구입처: 미주 각 기독교서점 (이성자 기자)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영어, 통역) 근무찬양대: 오후 7:30 www.chsbc.org Tel: (714) 999-4949, Fax: (714) 999-4925 6901 Knoll Ave., Brea, CA 92629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권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강아미: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949) 449-4449, Fax: (949) 449-4444 1750 N. Edgewood St., L.A., CA 90027	나성영원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강아미: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 419-8888, Fax: (213) 419-8911 1265 Wilshire Blvd., L.A., CA 90027 www.lasendor.org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경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오전 8:00(토) Tel: (213) 639-7323, Fax: (213) 639-1858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NorthFairfax)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EM 예배: 오후 8:30 근무찬양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Tel: (714) 929-8245, Fax: (714) 929-8197 8101 Glenview Ave., Brea, CA 92629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원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근무찬양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949) 441-2776 / Fax: (949) 441-3017 15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9 (L.A.CenterChurch)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949) 441-2776 / Fax: (949) 441-3017 15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9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Tel: (714) 772-7777, Fax: (714) 772-7777 1111 N. Breakers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근·유 예배: 새벽 8:00 Tel: (714) 719-2244, Fax: (714) 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등문교회 담임목사: 최재우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 489-9825, Fax: (213) 489-9827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7	디아스포라선교회 Diana Dayton Bible Cafe 대표: 권영자 목사 *가정에서 함께 읽는 '디아스포라'를 '죽음의 문지기'로 '죽음의 문지기'로 Tel: (213) 639-7728 / Fax: (213) 639-6102 1210 Gabriel Gate Mall, L.A., CA 90029 -기도부서: 사무실 1514(2) -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925) 799-0880, 2280, Fax: (925) 799-0412 1395 E. Colorado Rd., Redlands, CA 9115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949) 441-2776 / Fax: (949) 441-3017 15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9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 389-8977, 8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계영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15 (통역) 4부: 오후 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edocowestchurch.org Tel: (213) 444-6201, Fax: (213) 444-6236 170 West St., Los Angeles, CA 90004	방주선교회 담임목사: 박용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949) 441-2776 / Fax: (949) 441-3017 6728 Merced Ave., Chesham, CA 90008 Tel: (949) 441-2776 / Fax: (949) 441-3017 Web-site: www.sbcwestchurch.org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원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강아미: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949) 441-2776 / Fax: (949) 441-3017 121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www.bcc.org	빈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권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604) 684-4700, Fax: (604) 684-6717 2126 12th St., Surrey, B.C., Canada, V2Y 6P6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925) 444-6214 1781 W. La Habra St., La Habra, CA 90629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949) 441-2776 / Fax: (949) 441-3017 1097 E. Stedley St., Corona, CA 91724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김계연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15(월, 토) Tel: (949) 441-2776 / Fax: (949) 441-3017 18314 Alhambra St., Northridge, CA 91328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 745-8181(2차), 8182(3차), 8183(4차)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새창교회 담임목사: 성경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949) 441-2776 / Fax: (949) 441-3017 25814 N.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인디우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용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강아미: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949) 441-2776 / Fax: (949) 441-3017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2 www.igcc.org	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함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bvccchurch.org Tel: (949) 441-2776 / Fax: (949) 441-3017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14	오렌지카운티침례장로교회 담임목사: 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4) 949-0285 / Fax: (714) 949-8287 8209 Bobe Ave., Westminster, CA 92682	오렐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새벽 5:30 Tel: (714) 949-0285 / Fax: (714) 949-8287 2728 James W Wood Blvd., L.A., CA 90058	원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949) 441-2776 / Fax: (949) 441-3017 834 E. Normandie Ave., L.A., CA 90005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8:00(토) www.gwcc.org Tel: (714) 444-6201, Fax: (714) 444-6237 1646 N. Normandie St., Fullerton, CA 92630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박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949) 441-2776 / Fax: (949) 441-3017 1191 N. Glen Ave., Pasadena, CA 91108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213) 449-4600, Fax: (213) 449-4700 1807 S. Grand Ave., L.A., CA 90029 www.gpc.org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준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cc.org Tel: (949) 441-2776 / Fax: (949) 441-3017 123 E. Duane St., San Bernardino, CA 92409	코네티컷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cc.org Tel: (949) 441-2776 / Fax: (949) 441-3017 24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로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기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cc.org Tel: 213-273-8394, Fax: 213-273-8103 19003 Mariner Ave., Torrance, CA 90509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85-0019 Fax: (323) 685-0048 ■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세계로phen가는 북미신문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80. 성경의 궁금증들(4)-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

필자가 창조과학 사역을 시작했을 때 모태 신앙인이었던 아내가 듣고 황당해했던 것이 수천 년의 지구 나이였다. “아니 이 남편이 너무 나가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창조의 한 날이 한 번의 지질시대에 해당한다는 주장, 간격이론(창세기 1:1과 1:2 사이에 긴 기간이 있었다는 주장), 노아홍수가 지역적 홍수였다는 주장, 구조가설(

긴 기간을 성경에 집어넣으려고 지난 200년간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다. 이런 결과물들이 날-시대의론(창조의 한 날이 한 번의 지질시대대에 해당한다는 주장), 간격이론(창세기 1:1과 1:2 사이에 긴 기간이 있었다는 주장), 노아홍수가 지역적 홍수였다는 주장, 구조가설(

고 있을까?

첫째, 예수님은 젊은지구 창조론자였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기록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아담의 창조, 노아와 홍수, 소돔의 붕괴 그의 아내, 모세와 만나, 물고기 백속의 요나 등의 이야기를 사실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창조 때로부터(beginning of creation)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막10:6)라고 말씀하시므로 젊은지구 창조론자임을 공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고 45억년이 지난 다음에야 사람이 창조되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사람은 창조 사역을 시작하지 문자 그대로의 5일 후에 창조되었어야 “창조 때로부터”란 말이 맞는 말이 된다.

둘째, 창조는 문자 그대로 현재와 같은 24시간의 6일 동안에 불과 수천 년 전 일이다. 창세기 1장과 기록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00날이니라”의 “날”은 최초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의 ‘욘(yom)’이란 단어다. 이 욘은 구약 성경에서 2301번 나오는데 거의

리고 첫째 이유에서 밝힌 예수님의 창조 시작 말씀에 의하면, 창조 주간에 6000 여 년 전에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과학잡지 Nature(2004년 9월 30일자)에 의하면 현 인류의 최고 조상이 5000년 전에 존재했다고 한다. 이 시기는 바로 노아가 태어난 해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인구 증가율을 살펴 볼 때 도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의 인류 역사는 현재 인구를 설명하지 못한다.

셋째,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십계명이 창세기 1장에 수백만 년을 삽입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사실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다(출20:9-11). 하나님은 그 돌 판에 ‘6일’이라고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 착각을 하신 것일까? 여기에 도 숫자와 함께 ‘욘’이 쓰인 문자적으로 24시간 하루다. 만약 그 ‘욘’이 수백만 년의 긴 하루였다면 지금도 안식일일까? 19세기 초 수백만 년의 지구나이가 개념이 나오기까지 유대인들은 창조주간의 하루를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신 ‘젊은지구’ 나이는 6천여 년 욘(날)은 24시간·노아홍수는 고/중/신생지질시대 거짓 밝혀



수십억 년 vs. 수천 년?

성경에서 수천 년을 지지하는 증거들은 많지만 수십억 년을 지지하는 구절들은 찾아볼 수 없다.

창세기를 실제로 아니라 시나 설화로 취급, 유신진화론(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 점진적 창조론(지질시대에 맞춰 창조되었다는 주장), 다중격변론(지질시대마다 노아홍수 같은 격변이 있었다는 주장) 등으로 모두 다 긴 시간의 문제를 사실로 받아들여 창세기 1장을 왜곡한 경우다. 이 문제가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젊은 지구의 나이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기독교의 기초에 필수며 부흥을 위해 반드시 복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믿어버린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이

모두 지금과 같은 하루다. 가끔 ‘오늘날’과 같은 불특정 기간을 의미하는 날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문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특별히 창세기 2장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까지 숫자와 함께 ‘욘’이란 단어가 450번 사용되었는데 100% 24시간 하루다. 창세기 1장의 ‘욘’만 24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할 문법적인 근거도 없다. 하루의 날은, 창조 첫날 지구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구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진행되는 기간이다.

셋째, 성경의 족보를 보면 지구는 6000여 년 전에 창조되었다. 창세기 5장과 11장 그리고 여가와 마태복음 등의 기록에 의하면, 그

의 하루로 이해하고 있었다.

다섯째, 노아홍수는 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지질시대를 날려버린다. 고/중/신생대의 지질시대 거짓말이라는 증거들은 수도 없이 많다. 원래 이 지질시대는 진화를 사실로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연대측정법이 나오기 전에 진화의 믿음으로 화석과 지층의 순서가 결정되었고 연대로 계속 늘어났다. 지금도 화석이나 두개골의 나이를 측정하지 않는다. 결국 화석이나 지층의 순서가 진화론 순서와 뒤바뀌어 나타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다. 또, 창조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중/신생대의 석탄에 들어 있는 방사성 탄소비율이 동일하지 않다. 이 사실은 각 지질시대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모두 최근에, 그것도 같은 시기에, 다시 말하면 노아홍수 기간에 뿔뿔이 나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젊은지구에 대한 주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생각이 사실일까? 다음 칼럼에 계속된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년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인간의 절대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 나라...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9:12,13).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죽지않겠다고 사력을 다해 허우적거립니다. 이때에 그 사람을 구해주려 손을 잡았다가는 물 다 빠져 죽기 십상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만났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돕는 자의 손길에 맡기보다는 살겠다고 죽을 힘 다해 빠진 물속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더 이상 허우적거릴 힘이 다 빠지고 정신 줄을 놓을 즈음이라야 저항을 하지 않아 기운을 빼앗기지 않고 저를 서서히 물가로 데리고 나와 물 다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어내는 사람에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손을 내밀면 오히려 자존심이 상해서 손을 악으로 갈라려드는 것이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라고 예수님은 명하십니다.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진 의인들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심히 반항하는 영혼들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엔 아직 준비되지 않아 스스로 나는 도움이 필요없다 존재라고 겸손해져 고백하기까지는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그대로 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주님이신데 어찌 손길을 거두라 하시는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 본인이 부족한 필요를 인정하고 목이 마를 때 주어져야 귀한 줄 알지, 미리 필요를 보고 주어야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만과 원망을 뒤집어씌우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에 그 때가 오기까지는 손을 잠시 거두고 기다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뻘췌 길 아닌 스스로를 해하는 죄 된 길을 보물을 찾겠다고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완전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질박하게 병이 낫기를 찾아 헤매일 때는 작은 손길 하나라도 감지되기도 불특정 됩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사람은 잠으로 복된 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55:6,7).

어느 곳으로라도 문제의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바라볼수록 끝이 없이 풀어내리는 불안의 수렁입니다. 물어치는 절망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지금 이 순간이 곧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점입니다. 나의 절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십니다. 반항하고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시어 널리 용서해주시겠다고 지금 부르십니다. “지는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여서 돌아오 여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 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갑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30 (월-토) Tel: (702) 379-7979, Fax: (702) 379-8191 6534 N.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8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30 주일학교: 오후 11:30 Tel: (704) 841-6291, Fax: (704) 841-1698 4215 McIver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금요 기도회: 오후 7:00 Tel: (303) 437-8800, Fax: (303) 437-8943 7793 Ripley St., Arvada, CO 80009	풍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금요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30 Tel: (910) 222-8291, Fax: (910) 222-8291 3290 Morris Rd., Levittown, PA 19048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미국) 수요 기도회: 오후 8:00 Tel: (704) 845-9379, Fax: (704) 845-9396 1600 Rockrose Rd., Levittown, PA 19047	맨얼교회 담임목사: 김용태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45 새가족 기도회: 오후 8: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30 Tel: (410) 487-9794, Fax: (410) 487-8993 3706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병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1: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1:30 Tel: (617) 552-4450, Fax: (617) 552-4457 750 Main St., Hopedale, MA 01948	
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2:30 Tel: (410) 327-8444, Fax: (410) 327-8444 1005 Reservoir, Beltsville, MD 21052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한국)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Tel: (204) 458-0191 5007 Pacific Ave., Box 8028, Lloydminster, SK S6G 0S8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30 Tel: (206) 527-0387, Fax: (206) 524-1749 4640 N.E. 169th St., Seattle, WA 98145	입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30 Tel: (301) 870-8949, Fax: (301) 870-8179 850 Rony Rd., Gaithersburg, MD 20878	앵커리지델리언교회 담임목사: 유계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30 Tel: (207) 544-6446, Fax: (207) 544-3152 2320 Greenwood St., Anch., AK 99518	엘파스델리언교회 담임목사: 하재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Tel: (214) 915-7777, Fax: (214) 915-7777 3416 Atlas Ave., Ft. Worth, TX 761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Tel: (714) 542-0296, Fax: (714) 542-0377 750 Wilshire Dr., Houston, TX 77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금요 예배: 오후 8:00 Tel: (214) 434-6766, Fax: (214) 434-6837 408 E. 7th St., Dallas, TX 75247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성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30 Tel: (702) 341-4427, Fax: (702) 341-4448 4213 Metcalf St., Alexandria, VA 22307	주 예수 교회 담임목사: 배현창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수요 기도회: 오후 8:30 Tel: (916) 434-9100, Fax: (916) 434-9100 10201 Robbins Rd., Richmond, VA 23228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봉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30 Tel: (410) 203-0318, Fax: (410) 203-0318 329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Tel: (253) 585-9189 7401 S. Verde St., Tacoma, WA 98406	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Tel: (253) 838-2807, Fax: (253) 838-2824 8702 E. 8th St., Tacoma, WA 98444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수요 기도회: 오후 7: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253) 838-2807, Fax: (253) 838-2824 8424 E. Yakone Ave., Tacoma, WA 98444	
템파라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한국)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30 Tel: (480) 725-0191, Fax: (480) 567-3937 1150 S. Debon Rd., Chandler, AZ 85286	하트포드재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현만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30 Tel: (603) 842-4738, Fax: (603) 842-6626 306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하와이지역		아가페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30 Tel: (304) 726-9011 1835-A Paula Ave., Homosassa, FL 38818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858) 739-7004, Cell: (858) 218-4982 3022 8th Ave., Honolulu, HI 96818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808) 277-2386/967-1778/642-2522 1367 E. Kawili St., Honolulu, HI 96814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수요 기도회: 오후 7:00 Tel: (808) 847-4252, Fax: (808) 847-4167 www.honolulu.org 2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북미총회 새총회장에 목동주 목사 선출

2012순복음세계선교회 정총, 부총회장 3명 선출

2012순복음세계선교회북미총회(총회장 지원갑 목사) 제 37차 정기총회가 지난 27일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려 새 총회장에 목동주 목사(순복음영산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순복음세계선교회북미총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또 2부 회의에서는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 교회, NY), 강태욱 목사(웨이트빌순복음성리교회, NC), 안 현 목사(달라스안디옥순복음교회, TX) 등 3명을 부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원갑 목사는 설교 대신 총회장 1년 동안의 소감을 전하겠다고 "총회장으로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 이루어 졌다"고 말하고 "은퇴연금과 생명보험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번에는 은퇴연금 이사장에 선임돼 북미총회 목회자들이 은퇴 후에도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유명한 1.5세, 2

세 목회자들을 영입하는데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용기 목사는 동영상 통해 "북



KAPC 서부지역 목사장으로 기도회에서 서삼정 목사가 설교를 한 후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2012 KAPC서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

"영성의 자람" 주제, 강사는 서삼정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강기봉 목사) 2012서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가 서삼정 목사가(트란타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26일과 27일 양일간 총현선교회(담임 민중기 목사)에서 '영성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미총회는 가장 크고 먼저 설립된 장자총회로서의 모습을 잃지 말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북미지역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며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때근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감을 잃지 말라, 준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때가 온다, 가치있는 일 에 집중하라, 주어진 시간에 열정을 가지라" 등의 조언을 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회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총수입 268,838.41달러, 총지출 323,889.48달러로 55,051.07달러의 적자예산을 보고했다. 또 김남식, 김동규, 이황, 김성환, 주준서 등 5명이 목사임직을 받았다. 점심식사 후 세미나는 박종선 목사와 이태근 목사가 강의했다.

13개 지방회가 있는 북미총회는 353명의 목사와 75명의 전도사, 265명의 교회가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남선협과 다민족교회들이 연합하는 PRE 및 Class Act 법안 서명운동전개를 위한 기자회견이 북음방송에서 열리고 있다.

남선협, 다민족교회들과 연합전개

PRE 및 Class Act 법안서명운동

작년에 통과된 동성애 미화 교육법안인 SB48 법안을 반대하는 남가주교계의 움직임이 본격화 된 가운데 PRE 및 Class Act 법안 서명운동이 다민족교회와 연대해 전개된다.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이하 남선협 대표 김정환 선교사)는 23일 오전 미주복음방송에서 다민족교회 지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인도네시아, 중국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김정환 선교사는 "다민족 커뮤니티와 연대해서 동성애 교육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교계와 다민족교회들과 연합해서 기도하고 서명운동을 확장시켜겠다"고 밝혔으며 백운영 선교사(GPUSA 대표)는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이민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 주류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남가주교협 회장 데니 우랑기엔 목사는 "동성애 교육의 문제는 LA를 벗어나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막아야 한

다"고 강조했다.

트렌스폼 LA운동의 윌리엄 목사는 "세금 내는 납세자로서 세크라멘토에 있는 정치인들이 임의로 법안을 제정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 도덕적 부분에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사회가 타락한 것을 볼 때 슬픈 마음이 든다. 이 일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고 미국의 영적변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혁하기위해 기도와 영성회복운동 다지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을 위해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교회 지도자 조슈아곽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일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운동을 펼쳐야 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남선협은 PRE법안 서명이 마감되는 4월 15일 전에 연합 기도모임을 OC지역 교회에서 가질 계획 이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주최 신경림 목사초청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정체성 회복해야 참 자유 얻어"

미주여성목회자협-뉴욕교협, 신경림 목사초청 세미나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김금옥 목사)가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과 공동으로 주최한 신경림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28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서 열렸다.

목회자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신경림 목사는 자신의 체험을 통한 'shame'(수치심) 증상을 설명하면서 여성목회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정체성을 회복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목사는 남편 이승우 목사와 함께 감리교신학대 졸업 후 도미, 개렛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 웨슬리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 하버드대학교 MLE과정 등을 수료했다. 또 미연합감리교 영성 아카데미 2년 과정도 수료했다.

경력으로는 메모리얼 미연합감리교회 담임, 웨슬리신학대학원 공동체 담당 학장,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웨슬리신학대학원 및 신학원장, 목회자 특히 여성목회자로서의 정체성, 미국에 사는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등에 대해 참석자 자신들의 생각을 묻고 죄책감보다 더 힘든 shame에 대한 14가지 증상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또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이유와 목표가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

회로 열린 첫날 저녁 기도회는 이준준 목사(장대교회)가 기도를, 총현선교회와 연합성가대가 특송을 했으며 서삼정 목사가 '영성과 자람'(골3:10)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서삼정 목사는 "우리의 영성이 풍성할 때 행복해진다. 영성이 풍성해지면 하는 일이 수월해지며 형통해진다. 목회는 영성이 풍성하면 수월해진다. 영성이 풍성해지면 행복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영성은 성령을 따라 살 때 자라게 된다.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아를 깨뜨리고 내안의 영이 성령과 연합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민중기 목사의 환영

사, 강기봉 총회장이 격려사를 했으며 기도회로 이어졌는데 김충환 목사가 '4개 노회와 지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최동진 목사가 '조국과 북한 동포를 위해서', 박기태 목사가 '미국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인도했으며 황은영 목사(IRUS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번 기도회에서 서삼정 목사는 둘째 날 오후 '영성과 자람II'(벧후 1:3-7), 저녁 '영성의 자람과 사역'(렘4:11-16)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또 양수철 목사가 '남가주 복음화를 위해서', 이창우 목사가 '총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운영 목사가 '신학교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APU졸업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ECA교단 목사안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에서 박성민 APU부총장이 설명하고 있다.

아주사퍼시픽 ECA교단안수 설명회

5월중 첫 목사안수...M.Div졸업, 트리니티 신학중심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 윌레스 박사)가 지난 26일 ECA(Evangelical Church Alliance) 안수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본교출신 사역자들의 목사안수를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LA 한인 타운에 위치한 LA패스트(디렉터 클로에다 비니 박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ECA교단의 목사안수프로그램 담당하는 본교 부총장 박성민 교수는 "ECA는 협의회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NAE(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계열"이라고 말했다.

현재 ECA의 문제점은 한인교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목사안수 중 평가 시험이 없어 수준 낮은 교단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M.Div를 졸업해야하며 신학

은 교단분부가 있는 시카고의 트리니티신학교 신학을 중심에 두고 있다. 또한 서류전형과 인터뷰 등까지 최소 3개월가량 걸려 어느 교단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ECA의 장점은 군목프로그램으로 M.Div과정 72학점을 이수하면 군목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ECA 소속을 유지한 채 타 교단으로 편입이 가능하며 여가치 많은 일로 인해 교단을 탈퇴했을지라도 ECA소속 목회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APU에서는 5월경 첫 번째 목사안수를 준비 중에 있으며 10여명의 졸업생과 20여명의 졸업예정자들이 ECA 목사안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박 교수는 오는 4월17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교단리더들과의 미팅에서 안수프로그램에 대해 구체화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02)721-7721, FAX: (02)721-829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TEL: (031)321-6794, FAX: (031)321-6794 군포시 군포동 470-12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www.kimnara.com TEL: (02)341-4862, FAX: (02)341-4877 서울시 중랑구 장유동 319-1 (319-22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경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www.kimpojeil.com TEL: (031)321-6811, FAX: (031)321-6812 김포시 김포동로 151-1 (319-22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www.gwangjujeil.com TEL: (02)532-3411, FAX: (02)532-4334 300-070 광주광역시 서구 온정동 339-221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 www.dongkyeong.com TEL: (031)977-6211, FAX: (031)977-6212 2-15-1 Chobe Shinjyu-ku, Tokyo, Japan	돈돈한교회 담임목사: 장광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주일 6부예배: 오전 11:00, 7:00 www.dondon.com TEL: (031)977-6211, FAX: (031)977-6212 (031)410-62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www.romakc.com TEL: 301-349-1777, FAX: 301-349-1778 301-349-1777, 301-349-1778, 301-349-1779, 301-349-1780, 301-349-1781, 301-349-1782, 301-349-1783, 301-349-1784, 301-349-1785, 301-349-1786, 301-349-1787, 301-349-1788, 301-349-1789, 301-349-1790, 301-349-1791, 301-349-1792, 301-349-1793, 301-349-1794, 301-349-1795, 301-349-1796, 301-349-1797, 301-349-1798, 301-349-1799, 301-349-1800, 301-349-1801, 301-349-1802, 301-349-1803, 301-349-1804, 301-349-1805, 301-349-1806, 301-349-1807, 301-349-1808, 301-349-1809, 301-349-1810, 301-349-1811, 301-349-1812, 301-349-1813, 301-349-1814, 301-349-1815, 301-349-1816, 301-349-1817, 301-349-1818, 301-349-1819, 301-349-1820, 301-349-1821, 301-349-1822, 301-349-1823, 301-349-1824, 301-349-1825, 301-349-1826, 301-349-1827, 301-349-1828, 301-349-1829, 301-349-1830, 301-349-1831, 301-349-1832, 301-349-1833, 301-349-1834, 301-349-1835, 301-349-1836, 301-349-1837, 301-349-1838, 301-349-1839, 301-349-1840, 301-349-1841, 301-349-1842, 301-349-1843, 301-349-1844, 301-349-1845, 301-349-1846, 301-349-1847, 301-349-1848, 301-349-1849, 301-349-1850, 301-349-1851, 301-349-1852, 301-349-1853, 301-349-1854, 301-349-1855, 301-349-1856, 301-349-1857, 301-349-1858, 301-349-1859, 301-349-1860, 301-349-1861, 301-349-1862, 301-349-1863, 301-349-1864, 301-349-1865, 301-349-1866, 301-349-1867, 301-349-1868, 301-349-1869, 301-349-1870, 301-349-1871, 301-349-1872, 301-349-1873, 301-349-1874, 301-349-1875, 301-349-1876, 301-349-1877, 301-349-1878, 301-349-1879, 301-349-1880, 301-349-1881, 301-349-1882, 301-349-1883, 301-349-1884, 301-349-1885, 301-349-1886, 301-349-1887, 301-349-1888, 301-349-1889, 301-349-1890, 301-349-1891, 301-349-1892, 301-349-1893, 301-349-1894, 301-349-1895, 301-349-1896, 301-349-1897, 301-349-1898, 301-349-1899, 301-349-1900, 301-349-1901, 301-349-1902, 301-349-1903, 301-349-1904, 301-349-1905, 301-349-1906, 301-349-1907, 301-349-1908, 301-349-1909, 301-349-1910, 301-349-1911, 301-349-1912, 301-349-1913, 301-349-1914, 301-349-1915, 301-349-1916, 301-349-1917, 301-349-1918, 301-349-1919, 301-349-1920, 301-349-1921, 301-349-1922, 301-349-1923, 301-349-1924, 301-349-1925, 301-349-1926, 301-349-1927, 301-349-1928, 301-349-1929, 301-349-1930, 301-349-1931, 301-349-1932, 301-349-1933, 301-349-1934, 301-349-1935, 301-349-1936, 301-349-1937, 301-349-1938, 301-349-1939, 301-349-1940, 301-349-1941, 301-349-1942, 301-349-1943, 301-349-1944, 301-349-1945, 301-349-1946, 301-349-1947, 301-349-1948, 301-349-1949, 301-349-1950, 301-349-1951, 301-349-1952, 301-349-1953, 301-349-1954, 301-349-1955, 301-349-1956, 301-349-1957, 301-349-1958, 301-349-1959, 301-349-1960, 301-349-1961, 301-349-1962, 301-349-1963, 301-349-1964, 301-349-1965, 301-349-1966, 301-349-1967, 301-349-1968, 301-349-1969, 301-349-1970, 301-349-1971, 301-349-1972, 301-349-1973, 301-349-1974, 301-349-1975, 301-349-1976, 301-349-1977, 301-349-1978, 301-349-1979, 301-349-1980, 301-349-1981, 301-349-1982, 301-349-1983, 301-349-1984, 301-349-1985, 301-349-1986, 301-349-1987, 301-349-1988, 301-349-1989, 301-349-1990, 301-349-1991, 301-349-1992, 301-349-1993, 301-349-1994, 301-349-1995, 301-349-1996, 301-349-1997, 301-349-1998, 301-349-1999, 301-349-2000, 301-349-2001, 301-349-2002, 301-349-2003, 301-349-2004, 301-349-2005, 301-349-2006, 301-349-2007, 301-349-2008, 301-349-2009, 301-349-2010, 301-349-2011, 301-349-2012, 301-349-2013, 301-349-2014, 301-349-2015, 301-349-2016, 301-349-2017, 301-349-2018, 301-349-2019, 301-349-2020, 301-349-2021, 301-349-2022, 301-349-2023, 301-349-2024, 301-349-2025, 301-349-2026, 301-349-2027, 301-349-2028, 301-349-2029, 301-349-2030, 301-349-2031, 301-349-2032, 301-349-2033, 301-349-2034, 301-349-2035, 301-349-2036, 301-349-2037, 301-349-2038, 301-349-2039, 301-349-2040, 301-349-2041, 301-349-2042, 301-349-2043, 301-349-2044, 301-349-2045, 301-349-2046, 301-349-2047, 301-349-2048, 301-349-2049, 301-349-2050, 301-349-2051, 301-349-2052, 301-349-2053, 301-349-2054, 301-349-2055, 301-349-2056, 301-349-2057, 301-349-2058, 301-349-2059, 301-349-2060, 301-349-2061, 301-349-2062, 301-349-2063, 301-349-2064, 301-349-2065, 301-349-2066, 301-349-2067, 301-349-2068, 301-349-2069, 301-349-2070, 301-349-2071, 301-349-2072, 301-349-2073, 301-349-2074, 301-349-2075, 301-349-2076, 301-349-2077, 301-349-2078, 301-349-2079, 301-349-2080, 301-349-2081, 301-349-2082, 301-349-2083, 301-349-2084, 301-349-2085, 301-349-2086, 301-349-2087, 301-349-2088, 301-349-2089, 301-349-2090, 301-349-2091, 301-349-2092, 301-349-2093, 301-349-2094, 301-349-2095, 301-349-2096, 301-349-2097, 301-349-2098, 301-349-2099, 301-349-2100, 301-349-2101, 301-349-2102, 301-349-2103, 301-349-2104, 301-349-2105, 301-349-2106, 301-349-2107, 301-349-2108, 301-349-2109, 301-349-2110, 301-349-2111, 301-349-2112, 301-349-2113, 301-349-2114, 301-349-2115, 301-349-2116, 301-349-2117, 301-349-2118, 301-349-2119, 301-349-2120, 301-349-2121, 301-349-2122, 301-349-2123, 301-349-2124, 301-349-2125, 301-349-2126, 301-349-2127, 301-349-2128, 301-349-2129, 301-349-2130, 301-349-2131, 301-349-2132, 301-349-2133, 301-349-2134, 301-349-2135, 301-349-2136, 301-349-2137, 301-349-2138, 301-349-2139, 301-349-2140, 301-349-2141, 301-349-2142, 301-349-2143, 301-349-2144, 301-349-2145, 301-349-2146, 301-349-2147, 301-349-2148, 301-349-2149, 301-349-2150, 301-349-2151, 301-349-2152, 301-349-2153, 301-349-2154, 301-349-2155, 301-349-2156, 301-349-2157, 301-349-2158, 301-349-2159, 301-349-2160, 301-349-2161, 301-349-2162, 301-349-2163, 301-349-2164, 301-349-2165, 301-349-2166, 301-349-2167, 301-349-2168, 301-349-2169, 301-349-2170, 301-349-2171, 301-349-2172, 301-349-2173, 301-349-2174, 301-349-2175, 301-349-2176, 301-349-2177, 301-349-2178, 301-349-2179, 301-349-2180, 301-349-2181, 301-349-2182, 301-349-2183, 301-349-2184, 301-349-2185, 301-349-2186, 301-349-2187, 301-349-2188, 301-349-2189, 301-349-2190, 301-349-2191, 301-349-2192, 301-349-2193, 301-349-2194, 301-349-2195, 301-349-2196, 301-349-2197, 301-349-2198, 301-349-2199, 301-349-2200, 301-349-2201, 301-349-2202, 301-349-2203, 301-349-2204, 301-349-2205, 301-349-2206, 301-349-2207, 301-349-2208, 301-349-2209, 301-349-2210, 301-349-2211, 301-349-2212, 301-349-2213, 301-349-2214, 301-349-2215, 301-349-2216, 301-349-2217, 301-349-2218, 301-349-2219, 301-349-2220, 301-349-2221, 301-349-2222, 301-349-2223, 301-349-2224, 301-349-2225, 301-349-2226, 301-349-2227, 301-349-2228, 301-349-2229, 301-349-2230, 301-349-2231, 301



퀸즈장로교회에서 강사 정태영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회복하게 하옵소서”

퀸즈장로교회 춘계대부흥성회 강사 정태영 목사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춘계 대부흥성회가 지난 22일 저녁부터 25일까지 열렸다. 강사 정태영 목사(광주양림교회 담임)는 “회복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저녁과 새벽 말씀을 전했다.

첫날 저녁은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믿음”(눅7:1-10), 둘째 날 새벽 “기도합시다”(삼상1:10-18), 제

삼 “성도여 그대는 살았는가?”(계 3:1-6), 셋째 날 새벽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왕상19:1-8), 저녁 “능력의 종”(왕상18:30-40), 넷째 날 새벽 “충성의 7대 원리”(마25:14-23), 주일 “나는 행복자라다”(신 33:26-29), 저녁 “충성의 7대 원리”(마25:14-23)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부활절 연합예배가 교협 중대 전환점 될 것”

22일, 뉴욕교협 2012 지역준비위원장 마지막 모임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승호 목사)가 주최하는 2012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위한 마지막 지역준비위원장 전체모임이 지난 22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렸다. 28개 지역에서 20여 명의 지역준비위원장들이 참석한 이날 마지막 장소, 설교자 등을 점검했으며 헌금 봉투를 배부하기도 했다.

4월 8일 새벽 6시(지역에 따라 소 변경)에 일제히 드려지는 뉴욕지역 부활절 연합예배에 대해 양승호 회장은 “교협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가고 있다”며, “이 부활절 연합예배가 뉴욕교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뉴욕 지역준비위원장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협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지역준비위원장

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총무 이희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기도 이재택 목사, 출석호명 현영갑 목사, 진행사항 발표 이종삼 준비위원장, 마침기도 양민석 목사의 차례로 진행됐다.

부활절후 4월 9일 오전까지 각 지역의 헌금과 참석인원, 주보 등을 교협사무실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평가회는 13일(금) 오전 8시

30분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서 열리게 된다.

각 지역 개최장소와 설교자는 다음과 같다.

지역	개최장소	설교자
코로나	뉴욕한빛교회	유정열
우드사이드1	뉴욕아리랑교회	이재봉
우드사이드2	뉴욕초대교회	김원국
서니사이드	뉴욕장로교회	송병기
엘름리스트	퀸즈한인교회	유영진
플러싱1	뉴욕순복음연합교회	최예식
플러싱2	뉴욕중신장로교회	안승백
플러싱3	뉴욕신장로교회	박한영
플러싱4	뉴욕한복합교회	이태문
플러싱5	둔둔한교회	김성근
플러싱6	프라미스교회	조병광
플러싱7	대한교회	
컬리지포인트	뉴욕수정성결교회	김희복
프레시메도우	새생명장로교회	이성원
베이사이드1	뉴욕신광교회	한재홍
베이사이드2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이병홍
리틀넥	뉴욕중부교회	김재열
뉴욕북부	온누리장로교회	이종삼
웨스터	빛과생명교회	이종삼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성결교회	박희소
맨해튼1		
맨해튼2	소명장로교회	최병철
브루클린	브루클린제일교회	허우규
브롱스	뉴욕델교회	
LI 1	새인교회	조영철
LI 2	예일장로교회	
LI 3	한마음침례교회	박미아름
LI 4	LI한인연합교회	김종일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개원주년 후원 자선음악회

4월29일(주) 플러싱타운홀

뉴욕나눔의집(디렉터 이종선 목사) 개원 1주년 기념 후원 자선음악회가 4월 29일(주) 오후 6시 플러싱타운홀에서 열린다. 뉴욕 클래식 심포니 오케스트라(NYCSO)가 출연하는 이 자선음악회는 씨즌(대표 분석진 목사) 창간3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치러지며 나눔미션(대표 배영란 권사, 이사장 박성원 목사)이 주관한다.

지난 23일 플러싱 아리수 식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배영란 권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난 1년간 나눔의집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방문 노숙인들의 수가 배가 돼 하루 평균 20여명이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인들은 자립심이 강하고 잠재력이 많아 경쟁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를 벗어나고 있으며 자체 리더들을 세우는 것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종선 목사는 노숙인들의 자립을 소개하면서 “최근에는 여가 선용, 바둑, 영화 관람, 영어공부 등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여름에는 오픈공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NYCSO와 제인김 바이올리니스트가 비발디의 사계, 엘가의 세레나데 등과 독일주재 한인 첼리스트와 함께 피아졸라의 사계 등을 협연하게 된다. NYCSO 김진환 대표는 이번 음악회에는 완전한 클래식 음악 뿐 아니라 모두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곡들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티켓은 70달러로 공연 후 리셉션이 있으며 단체(10명)는 50달러. 자세한 문의는 (516)662-9233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복음의 소망 심는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 후원음악회 콜롬비아CDP방문 등 결의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황영진 목사)가 지난 21일 오전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 플러싱 선교회에서 3월 월례회의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역보고 및 행사계획을 논의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5월 아동결연 연을 위한 후원음악회 개최 △6월 콜롬비아 아동교육센터(CDP) 헌당식 및 결연아동 방문 △8월 13-17일 페루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단기간으로 참가(행진도) 참가모집 등을 결의했으며 김중동 이사장과 황영진 회장, 박진하 사무총장을 비롯한 자원위원들은 다음 주 중으로 모임을 갖고 이사회 회의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아동교육센터 건립 취지와 현재 건축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현재의 아동교육센터는 교육시설이 열악한 콜롬비아 아동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아구아다 지역에서 초등 학교 하나와 인근 마을에 중고등학교가 하나 있지만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전무하며 아이들은 가사 일을 도와야 하는 이유로 결석이 잦고 어른과 아이 모두 교육 열이 낮은 상태다.

황영진 회장은 “아동센터 건립 사

업은 현지 아동,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교실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기 발견 및 비전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이곳에서 아이들은 일직 예배공동체를 경험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신규 사업으로 결정된 후원음악회는 자문위원 유상열 목사(리빙스톤교회 담임)가 담당, 기획을 맡기로 결정됐다. 회의에 앞서 열린 견진회에서 설교를 맡은 박미아름 목사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관념적인 사랑이 아닌 굶주린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헌신해야 할 것”이라며 “공활한 마음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일이나 목회도 모두 축복해주시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미동부국제기아대책의 발전을 위해 △회장단 및 회원교회들의 열성적 참여를 위해 △아동후원 배가운동을 위해 △새로운 세금공제 등록하기 위해 △이사회 활성화를 위해 합심하기로 했다.

한 달에 30달러(1명) 아동결연 후원원은 (917)349-5631/황영진 회장, (917)620-8964/박진하 사무총장에게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교회일보 창간3주년 기념예배 및 자선의 밤에서 김인식 목사부부가 찬양하고 있다.

“선한 일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교회일보 창간3주년 기념예배 및 자선의 밤

교회일보(대표 우병만 목사)로 이름을 바꾼 인터넷 언론 교회넷이 창간 3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자선의 밤을 열었다. 지난 25일 저녁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열린 행사는 1부 예배(주님께 감사), 2부 특순(주님께 영광)으로 나눠 진행됐다.

예배는 김연규 목사 인도로 장재웅 목사 대표기도, 김인식 목사 특송, 방지각 목사 설교, 이상조 교수 김경구 학생 봉헌송, 양민석 목사 봉헌기도, 한창원 한인교회,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 뉴욕목사회 회장 김승희 목사 축사, 뉴욕교협 부회장 김중훈 목사 권면, 김수태 목사, 황경일 목사, 백창근 목사 격려, 금정달, 한재홍 목사 기금수령단체 축복기도, 최창섭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2부는 제시우 앙상블, 뉴욕기독부합창단, 전용대 목사, 송신OB합창단, 뉴욕권사선교합창단, 뉴욕장로성가단이 찬양했다.

방지각 목사는 에베소서 2장 8-10절을 본문으로 “그 은혜로 인

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인생의 행복은 인생관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영광을 돌리고 사랑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 생각지 못하는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고 “교회일보가 그러한 축복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회일보는 뉴욕코요강애 아동서비스센터(전선덕 대표), 뉴욕청소년센터(사무총장 김현동 목사), 무지개예림(김은경 사무총장), 두리하나USA(김영란 권사), 유스엔패밀리포커스(대표 이상수 전도사), 나눔의 집(대표 배영란 권사), 우리서로손잡고(대표 임선숙 사모),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 선한이웃어린이선교회(대표 김창렬 목사), 고어헤드선교회(대표 이상조 목사), 뉴욕빙원선교회(대표 김영환 목사), 뉴욕선선교회(대표 김희복 목사), 오픈순주제센터(대표 안승백 목사)에게 각각 자선기금을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후원음악회 홍보 기자회견. 왼쪽부터 홍성표 기술감독, 이종선 나눔의집디렉터, 배영란 나눔미션대표, 박성원 나눔미션이사장, 김진환 NYCSO대표, 제인김 바이올리니스트, 정도영 씨즌경영국장.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뉴욕갯재미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9:00, 11:00 수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8:30 유아예배: 오후 8:30 시복기도: 오후 8:30 시복기도: 오후 8:30	뉴욕몽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예배: 오전 9:0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8:00 시복기도: 오후 8:45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예배: 오전 9:0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제1회) 수일예배: 오후 8:00(제2회) 시복기도: 오후 8:00(제1회) 시복기도: 오후 8:00(제2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9:30, 11:30 수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8:00 시복기도: 오후 8:00	뉴욕순복음안대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예배: 오전 7:30, 9:30, 11:30 수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1:30 시복기도: 오후 8:30 시복기도: 오후 8:30(제1회) 시복기도: 오후 8:30(제2회)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예배: 오전 9:00, 11:30 수일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8:30 시복기도: 오전 8:45(제1회) 시복기도: 오전 8:45(제2회)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예배: 오전 9:00, 11:00 수일예배: 오후 1:00 수일예배: 오후 8:30 시복기도: 오후 8:00(제1회) 시복기도: 오후 8:00(제2회)
뉴욕호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분석진 원로목사: 방지각 1부 예배: 오전 7:15, 9:45 2부 예배: 오전 10:15, 12:45 3부 예배: 오전 1:30, 3:00 4부 예배: 오전 3:30, 5:00 시복기도: 오전 8:30 시복기도: 오전 8:30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수일예배: 오후 8:00 시복기도: 오전 8:00(제1회) 시복기도: 오전 8:00(제2회)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30, 12:00 수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8:30 시복기도: 오후 8:30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여형 주일예배: 오전 11:30, 12:30 수일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오후 8:30 시복기도: 오전 8:30	메디슨교회 담임목사: 장동환 주일예배: 오전 7:30, 9:30, 11:30 수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1:30 시복기도: 오후 8:30 시복기도: 오후 8:30(제1회) 시복기도: 오후 8:30(제2회)	여인영교회 담임목사: 김수복 주일예배: 오전 9:00, 11:30 수일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8:30 시복기도: 오전 8:30 시복기도: 오후 8:30	유니온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박희철 주일예배: 오전 9:00, 11:00 수일예배: 오후 1:00 수일예배: 오후 8:30 시복기도: 오전 8:30 시복기도: 오후 8:3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시복기도: 오후 6:00 시복기도: 오후 6:00 시복기도: 오후 6:00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예배: 오전 12:00, 2:00 수일예배: 오후 2:00 시복기도: 오전 8:30 시복기도: 오후 8:3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여현호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수일예배: 오후 8:00 시복기도: 오후 8: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예배: 오전 9:30, 11:30 수일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오후 2: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예배: 오전 9:30, 11:30 수일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8:30 시복기도: 오후 8:30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미아름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수일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8:30 시복기도: 오후 8: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한 후원교회들 찾습니다 L.A.: Tel. (213) 955-0000 N.Y.: Tel. (718) 955-0048 Fax. (718) 955-0048 Fax. (718) 955-0074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수일예배: 오후 2:00 수일예배: 오후 8:00 시복기도: 오후 8:4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수일예배: 오후 2:00 수일예배: 오후 8:00 시복기도: 오후 8:4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함봉원 주일예배: 오전 9:00, 11:00 수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7:00 수일예배: 오후 8:00 시복기도: 오전 8:45	브라질 사소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예배: 오전 9:00, 11:00 수일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오후 10:30 수일예배: 오후 2:00 수일예배: 오후 8:30 수일예배: 오후 7:0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병원 주일예배: 오전 9:30, 11:30 수일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오후 8:30 수일예배: 오후 12:30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황희철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수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후 6:00 주일학교: 오후 7:40 수일예배: 오후 8:00 수일예배: 오후 8:00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백은 목사 파라과이선교사 협회 주일예배: 오전 9:00, 11:00 수일예배: 오후 10:30 수일예배: 오후 8:00 수일예배: 오후 8:00(1,2,3부)

3월25일 이어 4월2일 서명운동 전개 OC교협, (SB48법안)동성애 반대 기자회견

캘리포니아에서 승인된 동성애를 미화하는 교육법안인 SB48 법안에 반대하는 PRE 및 Class Act 법안 서명운동이 남가주 교계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소재 모든 한인교회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동성애교육반대 OC기독교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OC교협)회장 엄영민 목사는 은혜한인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인들이 동성애 교육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OC 모든 한인교회가 연합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라고 호소했다.

한기홍 목사는 "이번 서명운동에 교계가 앞장서지 않으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어릴 적부터 바른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들이 동성애를 미화하는 교육을 받을 때 아이들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된다.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하며 교육 현실 앞에 반대서명운동을 적극 펼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정에서 바로 가르치도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세미나 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증경회장 박용덕 목사는 "서명 자격자는 시민권자이면서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한다"며,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등록과 동시에 서명을 할 수 있다. 유권자 용지는 DMV에서 구할 수 있

는데 우표를 붙여야 해서 조금 불편하다. 또한 우체국에서도 용지를 구할 수 있지만 소량으로 구할 수 있다. 대신 1300 S. GRAND AVE, SANTA ANA의 C건물에서 우표를 안 붙여도 되는 유권자 용지를 500 장 이상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가 하는 교육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PRE(Parental Right in Education)발의안과 사회과학에 있어서 자녀들이 정확히 배우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교육함에 있어서 그들의 사회기여부분을 삭제하는 Class Act(Children Learning Accurate Social Sciences Act)발의안은 각각 서명용지 제출 마감날짜가

다르지만 교계에서는 이 두 발의안의 통과를 위해 PRE의 제출날짜인 4월16일까지 50만4760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교회는 혹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무료표를 감안해 65만 내지는 70만 표를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이것이 승인될 경우 SB48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이를 거부 혹은 일정부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개의 발의안에 필요한 서명이 모이면 11월에 주민투표가 이뤄지게 된다.



미주 두란노 세미나팀과 FBM(Family Builders Ministry)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공동 주관으로 열린 가정사역자 훈련코스에서 금병달 목사 금정진 사모가 강의하고있다.

“가정 사역은 멘토링이 가장 중요” 두란노-가정을세우는사람들 공동 사역자훈련

미주두란노 세미나 팀과 가정 세우는사람들(FBM, 대표 금병달 목사, 금정진 사모)은 가정사역자 훈련코스를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LA 한인 타운에 위치한 미주두란노서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훈련코스는 결혼전 또는 부부 상담, 부부성장모임, 대화학교, 가족치유, 이혼-사별가정 회복모임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금 목사는 "가정 사역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 멘토링이다. 교회에서 교제중인 커플과 부부 등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건 멘토링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진단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령층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탄원서 작성은 PRE 서명용지 경우 www.TVNEXT.org(Traditional Value for Next Generation-다음 세대가치관 보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며, Class Act 서명용지는 Classact2012.com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영어 자료는 www.parentalrightsineducation.org에서 구할 수 있다. 기도와 후원 및 자원봉사 문의는 tvnext.org@gmail.com 또는 sarahspring2009@gmail.com로 하면 된다.

서명지 작성방법은 SB48 반대서명운동 때와 같으며, 검증편을 사용 절차대로 작성해야 하며 서명지 작성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리고 원본 청원서에 한해 복사를 얼마든지 해서 서명이 가능하다. 서명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OC 교협서기 이춘덕 목사(714-337-0278)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OC교협 관계자는 "서명된 모든 서류는 4월 10일까지 남가주교협 사무실로 발송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의: 남가주교협 (323)735-3000, 박세현 목사 (323)404-3147, 양경선 목사 (213)255-1725, 주님세운교회(310)325-4020, OC제일장로교회(714)891-2029, 미주복음방송 (213)381-1190 (박준호 기자)



위임목사 서약을 하고 있는 동문교회 4대 최태우목사.

동문교회 최태우 담임목사 위임예배 “성령님이 온전히 지배하는 사역자 되라”

설립 24주년을 맞는 동문교회(담임 최태우 목사)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 설립기념 감사예배 및 최태우 담임목사 위임식을 가졌다.

위임국장 이춘준 목사(로스앤젤레스 노회장/창대교회) 사회로 시작된 위임예배는 강광호 장로 기도, 황은영 목사(국제개혁신학대학교 총장) 설교로 진행됐다. 황 목사는 '성령에 매인 사역자'(행 20:17-35)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목회를 하는데 정보나 방법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온전히 지배하고 매인 사역자가 필요한 시대이다. 성령님께 매인 자되어 겸손하게 진실한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고 성령님의 지

배아래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임국장은 목사와 교우에게 서약을 받은 후 최태우 목사가 동문교회 제 4대 위임목사가 됐음을 공포했다. 권면을 맡은 정교영 목사(재미총신총동문회 부회장)는 총동문회에서 준비한 축하패를 전달하며 "양무리를 먹고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어 달라"고 권면했다. 이날 특별연주에 전선애 전도사, 축사는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가 맡았으며 김만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한인교회 40일 특별새벽기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4월2일(월)부터 5월11일(금)까지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교회 내 비전센터에서 개최한다. 평일 오전 5시30분과 토요일 오전 6시.
▲ 문의: (714)446-6200

가스펠아카데미 31일 개강

'햇빛재단'(대표 김영일 목사)이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신앙교육 세미나인 '가스펠 아카데미'의 첫 번째 행사를 31일(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복음과 현대 문화'를 주제로 필란 수양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인진한 목사(크로스매시 파운데이션 대표). 회비는 20달러. 참석자는 미리 등록해야 한다.
▲ 문의: (213)700-1397

2012 가주지역 부활절연합예배

2012년 가주지역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8일(주일) 새벽 각 지역별로 일제히 드려진다.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는 로스앤젤레스를 비롯 벨리, 샌디에고 등에서 교회협의회 또는 교역자협의회, 목사회 주최로 열리며 오렌지카운티는 교회와 목사회 기독교전도회연합회 공동주최로 열린다. 가주지역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일정은 다음과 같다.

지역	개회 장소	설교자
LA	동양선교교회	변영익
OC	베델한인교회	한중수
인랜드	인랜드은누리교회	박해성
벨리	벨리연합감리교회	이준우
중부	감사한인교회	조창훈
동부	선한목자장로교회	고승희
사우스베이	토랜스제일장로교회	김관중
샌버나디노	창대교회	김성일
샌디에고	(북)팔로마한인교회	최동진
	(남)한빛교회	조다윗
산호세	임마누엘장로교회	김동욱

(박준호 기자)



LACS정기연주회에서 출연자들이 청중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부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크리스천싱어즈 정기연주회 “시와 음악이 흐르는 어느 봄날에” 주제로

로스앤젤레스 크리스천싱어즈 정기연주회(LACS, 단장 김철이)가 '시와 음악이 흐르는 어느 봄날에'라는 주제로 25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렸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삼삼오오 연주회를 관람하기 위해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정기연주회는 '사랑', '소망', '믿음'이라는 제목의 무대로 꾸며졌다. 특별히 시인 최해령, 김승연, 조준, 이승희 씨가 무대에 올라 '포체리카', '소망이 있는

밤', '가려진 햇살을 조용히 찾게 하소서' 등 그들의 주옥같은 시를 낭송했으며 소프라노 클라라김, 클라라이, 문혜원, 김도희, 원순일, 정원혜, 메조소프라노 임형진, 테너 소병현, 이정훈, 바리톤 김성은 등의 솔로 및 듀엣 그리고 LACS의 합창곡 등이 월서연합감리교회에 울려 퍼져 봄날의 정취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날 연주회는 '주기도문'을 청중들과 함께 부른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주관

2012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 목사)의 주관으로 4월 8일 주일 오전 5시 30분에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L.A. 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죽은 권세를 이기고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진유철 목사의 사회로, 설교에는 남가주교협 회장 변영익 목사가 맡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 후 특별기도 제목

1. 미국의 신앙부흥과 경제부흥을 위하여
2. 조국의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하여
3. 이민교회의 부흥과 이민사회 번영을 위하여
4. 동포사회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특별찬양: 남가주장로성가단

2012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삶속에!'

- 일 시 : 2012년 4월 8일 (주일), 오전 5시 30분
- 장 소 : 동양선교교회 (담임: 박형은 목사)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
Tel.: (323) 466-1234 www.omc.org
- 강 사: 변영익 목사 (남가주교협 회장)

문의: 총 무 박세현 목사 (Cell) 323-404-3147 jesusheaven@hotmail.com
사무국장 양경선 목사 (Cell) 213-255-1725 sammoolyang@gmail.com

남가주교협 회장
변영익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 Tel. (323) 735-3000 Fax. (323) 735-3111 www.theckc.org

긴급기고



장헌일 장로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국가조찬기도회와 정교분리 관계 - 국가조찬기도회의 목적과 필요성

그 어느 때보다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때, 나라와 민족, 경제 번영, 국민화합 그리고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제44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지난 3월 8일 개최되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담임2장에 근거하여 기도생활의 권면을 실천하는 각 개인의 신앙의 표현이다. 기독교인들은 직분과 사명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중보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이다. 특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대통령과 국가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 상황에 따라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신이 가진 권세와 힘과 영향력이 참으로 아름답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가지도자를 향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조찬기도회는 자연인에 대한 기도라 아니라 대통령직과 국가지도자에게 부여된 그 직을 위한 기도회로 그 직을 수행하는 국가지도자를 통해 국민에게 행복과 안정 평안을 주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할 (대한민국)헌법 제20조 2항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어떤 종교를 특별히 보호하거나, 특권을 부여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할 자유를 말한다.

그러므로 정교분리(政教分離)란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사원(寺院)과의 분리의 원칙을 말하는데, 이것은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世俗的)·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할 일이지 국민의 신앙적·내면적 생활에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즉 국가는 각 개인의 종교 활동 즉 신앙생활을 인위적인 법적으로 강제 제한한다든가 간섭해서는 안 되며 자기의 신앙에 따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최근 불교계는 기독교적인으로서 소신껏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의정 활동하는 기독교회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낙선대상자로 지명하여 발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월1일 미국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60회 미국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조계종 차기 종정인 불교 지도자가 종교 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제 더 이상 불교계는 기독교 고유 신앙의 다양한 기도와 형태중의 하나인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제 불교계는 글로벌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선진국가로서 국민화합을 위해서라도 다종교사회에서 좀 더 성숙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언행은 삼가야 하며 고유한 신앙 활동을 존중하는 품격과 함께 종교간 이해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각 교단들 총회 앞두고 공정선거 유도 4·11선관위 못지않은 감시·감독 엄격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선 못지않게 교계에서도 5월, 9월 총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뜨겁다. 각 교단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엄격한 규정아래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고 있다.

◇후보 등록부터 까다롭게=선관위가 조직되고 규정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는 교단은 대개 중대형 교단이다. 루터교처럼 무기명 다득표자를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거 공고를 내놓고 후보 등록과 제출서류, 등록방

1500만원의 등록비를 낸다. 김승동 예장 합동 선거관리위원장은 “교계에서 유일하게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책임감을 갖고 출마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장건발표회 등 선거 경비를 직접 책임지고 교단 발전을 위해 헌금을 기탁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선거운동 꼼짝 마! =선거가 치열해지다보니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늘어나고 있다. 예장 통합은 최근 ‘불법 선거 운동 규정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교단은 접대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을 금지하는 규정을 내놨는데 후보자는 총대가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 일체 참석할 수 없

“유예기간 갖고 사회갈등 최소화” 한국교회언론회 ‘종교인 과세’ 논평 발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최근 박재관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 검토 발언에 대해 ‘종교인 과세 문제, 합리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교회언론회는 20일 논평을 통해 “납세는 국민의 의무를 통해 국가에 도움을 주는 행위이며 국가를 위해 늘 염려하고 기도하는 성직자들이 굳이 반대할 사항이 아니다. 몇몇 대형교회를 포함해 다수의 교회는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그러나 오랜 관습은 단기간 내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도 현실”이라며 “국가의 정책도 갑자기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10년, 20년의 장기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듯이, 종교인 과세 문제도 시간적 유예를 갖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종교인이 낸 세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같은 종교인들을 돕는 것도 필요하며, ‘조세정의’가 사회정의와 함께 한다면 이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평은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이 종교인과세 문제를 다룰 때 특별한 기독교에 대한 공격적 여론을 일으키는 보도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기독교인 뿐 아니라 다른 종단에도 ‘종교인 과세’는 단순한 기독교의 문제만이 아닌, 종교인 전체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끔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회, 첨단 IT와 만나다 스마트폰 예배, 교적관리시스템 통한 출석·신앙생활지도 등

[미션라이프] “아플 때 편하게 예배드리고 교회 업무도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약하고...”

교회들이 첨단 IT(정보기술)를 활용하면서 교회 업무나 교적 관리의 편리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회 내 행정실과 로비, 카페 등 성도들이 머무는 공간에 무선 공유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교회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성경공부와 화상회의 등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와 연계해 성도의 신앙생활을 돕고 전도활동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서울 정릉 뱀열교회(박태남 목사)는 거동이 불편한 성도를 위해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RF칩을 통해 출석과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있다. 또 QR코드를 주보에 삽입해 교회 소식과 설교, 찬양대, 교회홍보 영상물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원 명성교회(유만석 목사)는 인터넷과 태블릿PC에서 확인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교적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장년부와 교회학교 학생들의 출석을 관리하는 등 성도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있다.

전남 순천 한소망성결교회(홍상

라인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활용해 예배와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교회도 점점 늘고 있다.

유가족들이 함께 은혜받을 수 있도록 생전 고인의 모습을 장례식 발인예배 때 영상으로 보여주는 전복익산 삼일교회(진영훈 목사)도 있다. 1주년 추도예배 때는 고인의 장례예배를 녹화해 제공한다. 좋은씨앗선교회(대표 정철우 목사)는 해외 선교사의 기도편지와 선교지 소식을 소셜네트워크와 연동된 블로그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중보기도와 후원자를 관리하는 IT선교를 진행

한기총, 여의도서 부활절 연합예배 NCCK-한기총정상화비대위와 연합에 불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다음 달 8일 오전 5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앞에서 2012년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고 27일 밝혔다.

한기총은 이날 오후 회원 교단의 총무 모임을 갖고 2012년 부활절 연합예배 장소를 이같이 결정했다. 홍대표회장은 “한기총은 그동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공동으로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를 개최해 왔다”며 “이번에도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정신을 살려 공동 개최 하길 원했으나 NCCK의 입장을 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새끼 새끼로"
대표 박세복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 유아교육학과
종교철학학과 / 문화철학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sefrees.com
TEL: (714) 796-8830 FAX: (714) 796-8834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가야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마나, 격정행사

아르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 L.A., CA 90010

전미주와 해외 44개국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 한인 교회 주보에 수록 신청서

교회 기록교 기관, 기록교언론 선교의,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5-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686-4400 Fax:(718)6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_____
③ 교의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목주소	_____
⑥ 사목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⑦ E-mail Add.	@ _____
⑧ Web Add.	http://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 번번 해당사항이 없음을 표시해 주세요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유통점

2707 N. Sepulveda Blvd., #100 Los Angeles CA 90008
TEL: 818.232.4894 Fax: 818.232.458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earthlink.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를 밝히는
미주크리스천신문 구독하기

기사제보와 문의선교 후환을 받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격동하는 지구촌 긴박한 땅끝 선교”

KWMC 제7회 한인세계선교대회 7월 23-27일 빌리그래함 센터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는 이 종말론의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제를 향한 긴박성을 재확인하고 7,000여 한인 디아스포라교회의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촉진하기 위해 제7회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12)를 7월 23일(월)에서 27일(금)까지 빌리그래함센터(시카고 윗튼대학)에서 개최된다.



또한 그전 주일 7월 20일(금) 오후 5시부터 23일(월) 정오까지는 선교사님들만 모이는 제14회 한인선교사대회(KWMF2012)와 아울러 18세 이상 대학/대학원생/청년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제2회 한인선교사 자녀대회(WMK Conference 2012)가 동일 장소에서 선교사대회와 같은 기간에 개최된다.

주최 측은 “지난 1988년부터 4년마다 열린 본 대회가 이번 제7회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마지막 때 세계선교한민족이 담당하라!’고 한국교회와 해외한인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금번에 ‘격동하는 지구촌 긴박한 땅끝 선교’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역사적인 선교대회를 통해 각 계층의 선교동반자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와 정보의 교환 등을 나누는 협력선교의 대광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소개했다.

주최 측은 금번 선교대회는 선교사들과 MK들을 위한 대회에 이어 30세 이상 한어권(목회자 700명, 평신도 1,800명, 선교사 1,000명)을 위한 제7차 한인세계선교와 더불어 18-29세 대학생 청년 선교헌신자(3,000명)들을 위한 GKYM Festival, 그리고 13-17세의 청소년들(600명)을 위한 GKYM Youth 등 포함 7,000여명이 집결하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사상 최대 규모의 선교대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한 협력선교의 대열을 정비해 세계선교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동 선교대회는 1988년을 시작으로 1992년, 1996년, 2000년, 2004년, 그리고 2008년 동일 장소에서 열려, 제1회(1,500명), 제2회(2,500명), 제3회(3,300명), 제4회(3,500명), 제5회(4,000명), 제6회(4,500명) 선교대회를 통해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는 한인교회 선교운동의 활성화를 경험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기사제공: KWMC)

이슬람 뉴스

캄보디아 향한 이슬람 금융이 움직이고 있다

[프놈펜 뉴스] 지난 10일 전문가들은 이슬람 금융이 캄보디아와 중동 간 무역뿐만 아니라 이슬람 대부분의 국가에서 투자 유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 무역을 통한 이익을 차단하고 대출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지식은 캄보디아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캄보디아 무슬림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자의 증언에 따르면 할랄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수요는 말레이시아, 중동 국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들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무슬림 비즈니스 오너들은 이슬람 법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을 통해 무슬림들은 이러한 나라들과 무역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지역 안에 있는 이슬람 은행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무슬림 여성이 프놈펜의 민체이(Meanchey) 지역 시장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은 이제 뜨거운 주제이다.

지난 10일 캄보디아에서 처음 개최된 할랄 금융 컨퍼런스에서 국제사리아연구소(International Shari'ah Research Academy)의 원장인 Ashraf Bin Md Hashim은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요 종족이 무슬림이 아닌 국가에서 이슬람법을 준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틀림없이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짬족 공동체의 일원이며 사회 복지부의 장관인 Ahmad Yahya는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들이 캄보디아의 주요 종족인 크메르 종족보다 낮은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캄보디아 안에 무슬림 그룹인 짬을 위해 이익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캄보디아 안에서 무슬림들을 살펴보면, 비즈니스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사는 40만 명의 짬족에 대해 포스트지는 지난해 8월 보도한 바 있다. 이슬람 금융은 소액 금융 지원의 형태로 캄보디아에 최초 출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이자를 받지 않는) 소액 금융기관의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Cambodian Intelligent Investor Organisation의 대표 Stes Nazy가 전했다. CIIO는 지난 10일 토요일 회의를 열었다. 일부 짬 참석자들은 그들이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데 어떻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이런 이슬람 금융이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중동 국가로부터 할랄 음식을 수입하는 회사인 Mat Fasy는 캄보디아와 중동 간 사업이 지금은 적은 규모이지만 쌀과 고추 등의 상품들을 볼 때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Mat Fasy에 따르면 이슬람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이해는 중동 무역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한다. 현재 말레이시아로부터 할랄 음식들을 수입하는 Sulaiman Muhammad는 만약 관행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다면 캄보디아에서 무슬림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남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은행들로부터 금융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있는 무슬림 기업들은 자금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이슬람 금융이 이곳에 있다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슬람 은행들이 우리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Sulaiman Muhammad 인터뷰에서 발췌) [역자(전호진 박사)주] 지난주에 이어 이상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슬람 지금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랄은 이슬람 식으로 도축된 전형적인 종교 음식을 말하며, 명시된 이슬람법은 샤리아(Sharia)를 일컫는다. 이슬람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샤리아를 알아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바꿔 말하면 이슬람의 경제와 종교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슬람네트워크)



KAFHI 정기이사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2012 이사회

선교훈련원 개설, 10주년기념 선교포럼 개최 등 논의

KAFHI(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회장 김형균, 이사장 배현찬)는 시카고 소재 본부 회의실에서 2012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KAFHI는 어린이결연을 통해 부룬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케냐, 페루, 우간다의 굶주린 어린이 1300명을 매일 지원했으며, 올해는 2000명의 어린이를 결연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구호를 통해 동일본 대지진 등 심각한 재난지역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KAFHI에서 파송된 케냐, 자메이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아이티의 형거코어(기아봉사단)의 보고를 받고 2012 사업도 승인했다. 특별히 24시간 기아체험 훈련과 단기선교 훈련 등을 통해 빈곤국가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한 총체적인 선교의 중요성을 한인교회에 알렸다. 지난해 이 일을 위해 함께

한 시카고라디오코리아의 전정고아돕기 6.25 공개모금방송, 테너 이용훈의 새생명 축제, 새소망교회(안인권 목사)의 동아프리카 돕기 자선바자회, 소리엘 지명연(홍보대사)의 성탄콘서트에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했다. 2012년 10주년을 맞아 KAFHI 선교훈련원을 개설하고, 한인교회의 선교사역을 지원하기로 하고 백신종선교사를 선교훈련원장으로 그리고 조나단 김을 간사로 임명했다. 선교훈련원은 9월부터 미션익스포저와 단기선교 퍼스펙티브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한 아프리카센터에서 지역개발학과를 개설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공동체 변혁을 꿈꾸는 현지지도자 양성을 시작했다. KAFHI의 비전과 사역 가치는 시카고 윗튼대학에서 열리는 2012 KOSTA와 2012 KWMC 한인

세계선교대회의 아동구호 NGO 선교포럼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국제기아대책(FH)은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중남미의 주요최빈국에서 빈곤 아동에 초점을 둔 공동체변혁을 위해 30개국에 넘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그중 한 일본부는 아이티를 비롯한 10개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0월 7(주)-10일(수) 국제본부에 위치한 피닉스(템피조로교회)에서 10주년 기념 선교포럼을 열고, 세계 선교동향과 NGO선교사역의 과제를 점검하는 의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선교포럼은 국제기아대책(Food for the Hungry)에서 지난 역사와 vision 2020을 소개하고 NGO 선교사역을 담당했던 현장선교사와 본부사역자, 선교신학자 및 북미주의 대표목회자들이 모여 향후 10년의 선교과제와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AFHI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신입부이사장에 최훈석 영신건강 대표를 위촉했고, 이계준, 이현혜를 비롯한 신입이사를 영입했다. 또한 워싱턴 지역 코디네이터로 신구용 박사(볼티모어번영교회 장로)를 LA 지역 코디네이터로 노희준 장로(한길교회)를 임명하였다.

또한 KMC미주연회와 선교협약을 맺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했으며 앞으로 주요 한인교회 교단 및 선교단체와 선교협약을 통해 NGO 선교파트너십을 이루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미주한인교회의 선교사 훈련 및 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KAFHI 사역, 훈련 및 참석은 본부 사무실 (847)296-4555, (703)473-4696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KAFHI)

www.sbm.or.kr

크리스천이 이대로 살아가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총재 황 의 영 박사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기독교생활개혁신공부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BAL MOVEMEN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성물 바른선교를 자랑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동북권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 전체뉴스
- 칼럼
-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어플을 이용해서 어플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24시간 운영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전화: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6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8-0201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반 기독교적인 미국 법안 안내



아는 게 힘!(6)

새라킴 사모
(Christian Coalition 설립자)

크리슬람(Chrislam)과 샤리아 법안(Sharia Law) (하)

몇 가지 샤리아 법 소개

1. 이 법은 여성들의 탈선을 막고 남성과 여성의 가치 기준과 차이를 엄격하게 두고 있다. 따라서 미인대회에 나갔던 여자가 둘로 맞아 죽어도 샤리아 법 규정의 하에 아무 가책은 없다.
2. 계약이나 유산 분배 등을 할 때 여인은 남자의 1/2의 가치를 정하고 또 여인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4명의 남자 증인이 있어야 그녀의 주장이 입증된다.
3. 여자들에 대한 교육도 남자들의 교육 우선권에 밀리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4. 금융 규범에 있어서도 샤리아 코란법에 의하여 무척 복잡하고 거기에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수(칼로 목 자름) 시킬 권리가 무슬림 지도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슬람 금융은 1980년대 초 이집트의 테라조직 '무슬림 형태단'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1988년 스위스에서 안타크와 은행이 설립돼 이슬람 과격 테러단체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자금원으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그 일이 밝혀지며 9.11 뉴욕 테러사건 후 문을 닫았다.
5. 이슬람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이슬람 법(샤리아)에 의해 유대인, 기독교인, 힌두교 등 무슬림이 아닌 비무슬림들을 모두 다 죽이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슬람법인 샤리아가 합법적으로 미국의 헌법과 합쳐진다면 기독교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나이지리아 국민들처럼 날마다 테러의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왔다고 발언하며 오바마가 카이로에서 더 이상은 "미국이 크리슬람 국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 많은 미국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경악하게 했다.

그뿐 아니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은 더 이상 이슬라미를 우호국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까지 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9.11 테러사건이 있었던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바로 옆에 그라운드제로 모스크를 짓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지난 2011년 9월 22일에 무슬림들은 이슬람 문화센터의 첫 번째 전시회 밤을 성공리에 가질 수 있었다. 특별히 9.11 때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큰 공헌을 했던 팀 브라운이라는 소방수는 이 그라운드제로 모스크를 짓는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서명을 수없이 올렸으며 많은 시민들이 서명서를 올렸지만, 결국은 오바마 및 정부에 의해 통과가 된 것이다.

미네소타 5th congressional district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 다시 뽑혀 미국 최초의 무슬림 U.S. Congressman이 되었으며 최초로 미네소타에서 하원의원으로 뽑힌 아프리카-아메리칸이기도 하다. 이 사람은 swearing - ceremony 때 성경책을 거부하고 코란을 가지고 와서 swearing하겠다고 하여 문제가 생겼다.

오클라호마 샤리아 법안 통과 안됨

지난 1월 10일, USA투데이의 보도에 의하면 무슬림 리더들과 무슬림을 우호하는 정치인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종교와 샤리아 법안을 오클라호마 주에 통과시켜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해왔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앞으로도 미국의 다른 주에 그리고 미국 헌법으로 들어오자 하는 이슬람법을 막을 길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견을 확실히 그리고 계속하여 오바마 정부에 알려줘야 할 것이다.

샤리아 법안이 기독교에게 주는 영향은 "종교평화" "세계평화"로 위장한 큰 혼돈이다.

이슬람의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절대로 같지 않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 전지전능한 구속자, 구원자,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신실하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단 한분뿐인 "유일신"이시다.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예수님을 모하메드와 동일시 할 수 없다. 샤리아 법안은 이슬람 종교와 오르팔 윈 팔 같은 역할을 한다. 샤리아 법이 미국의 헌법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가 되는 것이 시간문제일 것이다.

미국에 크리슬람과 같이 혼돈스런 종교에 믿음의 교회들과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힘써 기도하고 성경말씀을 제대로 알며, 샤리아법이 제대로 미국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서명운동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오바마와 그 정부에 알려야 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의 깃발을 들어주시기를 부탁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서 볼 수 있다.
연락처: tvnext.org@gmail.com



미국 속에 자리잡기 시작하는 샤리아법, 오바마와 정치적 상황 이미 볼티모어 뿐 아니라 2004년에는 알칸사스에 있는 리틀 락에 "The Islamic Center for Human Excellence"라는 곳이 만들어지며 모스크, 학교 등 이슬람의 문화센터를 세우고자 무슬림 리더들은 미국정부에 계속 서명서를 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그리고 2011년 이집트 카이로에 갔을 때 한 얘기 중 "무슬림에 대한 진분을 높이며" 그들과

미국 최초의 무슬림 정치인 Keith Ellison(공화, 미네소타)은 2007년부터 US Representative로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끝없는 용서 (마18:21-35)

22절은 용서의 횡수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주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는 횡수를 제한하지 않는 끝없는 용서를 통해 그 당시 용서에 관한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용서한다'는 말의 원어가 '보내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것들을 우리의 기억 지평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하

신 것을 본받는 게 우리도 마땅합니다. (사43:25)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죄를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은 완전하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뺏았던 구름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사44:22). 온 하늘을 덮고 있던 구름이 사라지면 곧 푸른 하늘이 나오고 우리가 그 구름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형제들의 허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와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골3:13).

화 신앙적 편견 (마19:1-12)

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혼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한 사실이 나옵니다. 당시 이혼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신24:1은 아내를 위해 데려온 후 수치되는 일이 그녀에게 발견되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해 예수님을 논쟁에 휘말리게 하고자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문제 자체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전통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신앙적 고정관념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뒤야 합니다. 칼빈의 주장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거나 웨슬리의 가르침을 성경보다 중시해서 안됩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서로를 배척하지 말고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 어린아이와 같이 (마19:13-15)

주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14절)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미 마18:3에서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선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는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입니다. 둘째, 부모의 말에 절대 순

종합니다. 셋째, 가르침을 받아들인데 있어서 단순합니다.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 의지하듯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겸손하게 가르침을 단순한 마음으로 받는 자, 이런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 잘못된 구원에 접근 (마19:16-22)

16절에 한 유대관원이 주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구원관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수행하고 자선도 베풀었습니다. 본문의 부자청년도 율법을 행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라

고 반문한 것입니다. 로망 롤랑은 마하트마 간디를 "가장 자연스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는 간디가 그리스도와 닮은 사상과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이유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롬 1:17).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금 사람의 기준과 틀린 구원 (마19:23-30)

25절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소스라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축복은 "부요, 성공,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부자는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게 유익하던 것' 가운데

는 '부'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철저히 가난하게 되는 것조차 기쁨으로 여긴 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서는 안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원은 외견상 드러나는 것에 판단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선택된 사람들 (마20:10-16)

4절을 보면 제 삼시까지 장터에서 놀고있는 품꾼들에게 포도원주인이 상당하게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은 원한다고 임의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일꾼이 된 것도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예정, 부르심의 근거라든지 그 기준에 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베드로나 마테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이 선택됐다는 점과 우리도 그렇처럼 선택됐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러 일꾼 세우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 거룩한 직임을 맡기셨으므로 아무도 자기를 내세우려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저 충성뿐입니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배경 /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이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묵화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화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 철저한 어도트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행에서 대행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및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음악

새로운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악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E7 미가엘 반주기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정용 스탠드
- USB 호스트 기능
- 오가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실시간 연주방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정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엘리성구사

에허드수정강대상

BE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하면 빛나는 강대상 엘리트의 독특한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 3000 \$2490 (특히)

한국대형 1000 \$1290 (특히)

Good Design 2000 \$1090 (특히)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방남부지역 선명

타이피 자음으로 제작(2000대부터)

스테인(1000대부터)

스테인(500대부터)

스테인(200대부터)

스테인(100대부터)

스테인(50대부터)

스테인(20대부터)

스테인(10대부터)

스테인(5대부터)

스테인(2대부터)

스테인(1대부터)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i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정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부활절 축하 광고

Happy Easter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Tel.(323)939-7323
Fax.(323)939-1656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헌성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Tel. (213)413-1600
Fax.(213)413-1911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810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Tel.(714)826-6245
Fax.(714)826-6187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41-20 Queens Blvd.,
Sunny side, NY 11104

Tel. (718)482-7788
Cell.(917)349-5631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el. (213)215-8523
Fax.(213)977-1183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목사: 박용덕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el. (714)401-9874
Fax.(562)947-1760

남가주왕성교회

담임목사: 안경찬

2500 Wilshire Blvd #700
L.A., CA 90057

Tel.(213)819-881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Tel.(704)-841-0821
Fax.(704)841-1625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Tel. (718)464-2295
Fax.(718)762-4693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718)461-7835
Cell.(718)938-1777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42-15 166St,
Flushing, NY 11358

Tel. (718)762-5756, 2525
Fax.(718)961-3111

뉴저지베다니교회

담임목사: 장동찬

491 Alps Rd,
Wayne, NJ 07470

웨인:(973)694-3880
포트락:(973)694-3880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Tel. (702)648-7994
Fax. (702)648-7057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Tel. (213)380-9078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2202
Fax(213)381-2535

방주선교회

담임목사: 박동서

5738 Marconi Ave.,
Carmichael, CA 95608

Tel.(916)482-8800
Fax(916)482-5571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벤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벤엘장로교회

담임목사: 변영익

857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7-1733
Fax.(323)931-2836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Tel.(626)339-6177
Fax.(626)967-3078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501 S. Ldaho St, #200
La Habra CA 90631

Tel. (562)690-9800
Fax.(562)690-8044

샤롯데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Tel.(704)529-0900
Fax.(704)529-0998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635-A Palolo Ave.,
Hon., HI 96816

Tel. (808)735-0011
Fax. (808)732-5550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el. (818)249-2871
Fax.(818)249-051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결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Tel. (915)755-1490
Fax.(915)751-4365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907)344-3182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

Tel.(213)245-4090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188-12 72Ave
Fresh Meadows, NY 11366

Tel. (718)310-7061
Tel. (718)310-7062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Tel. (732)310-0022
Fax. (732)537-9742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춘준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el. (909)388-2940
Fax.(909)338-2941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939-8599
Fax.(718)321-880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영춘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안디옥교회

담임목사: 호성기

One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Tel. (610)828-6760
Fax.(610)260-1343

풍성한교회

담임목사: 박호우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8

Tel. (213)381-9490
Fax.(213)385-9191

하와이안디옥침례교회

담임목사: 우동식

99-400 Aiea Heights Dr.,
Aiea, HI 96701

Tel. (808)488-7552
H.(808)625-4479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Tel.(860)643-4738
Fax.(860)647-0565

한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운영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 (213)739-8824
Fax : (213)739-8821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Tel. (718)353-3159
Fax.(718)353-31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발행인 장영준 목사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The Lord!

주최: 미주크리스천 신문

강사



김용도 목사
• 금란교회
• 주강사



소강석 목사
• 새에덴교회
• 주강사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 주강사



황의영 목사
• SBM 대표



현상덕 목사
• 캐나다 대회장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조일래 목사
• 수정교회



승용결 목사
• 신천교회
• 현지대회장



이영섭 목사
• 불티모어교회



이명연 목사
• 나성서부교회



김승욱 목사
• 할렐루야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조일구 목사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김규동 목사
• 요한동경교회



승규식 목사
• 차세대 연구소 소장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교회 이름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평신도	
X명		
소계		
선금	CK#	
잔금	CK#	

본인은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 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잔금을 등록민기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 숙소: 워커힐 호텔

- **참석대상** 1) 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온라인등록** 웹사이트 www.chpress.net 를 방문하셔서 개인정보와 교회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등록금**
목사·선교사: 200달러(24만원) | 평신도지도자: 200달러(24만원)
한국현지등록: 50불(6만원) (숙박제외) (*선착순 마감)
- **연락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sunnykapcq@yahoo.co.kr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presssj@hanmail.net
한국 등록처: 박종인 장로 (금란교회 사무국장) TEL.(02)490-7000, FAX. (02)436-5770
- 등록금 계좌번호: 하나은행 (279-910002-91105), 예금주: 금란교회, 입금자명 옆에(세마나)를 기재해 주세요.
- **항공권/관광 문의**
- 담당자: 유 여행사 (718)463-9500 / Mrs. 유Miss 진 / yootravel@hot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